

C2007-48 | 2007. 12.

한·중 FTA 대비 중국 과수산업의 실태 및 대한국 수출가능성 분석

김 윤 식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윤식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집필

머 리 말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곡물과 채소류를 비롯하여 많은 농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멀지 않은 미래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상황인데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의 관세를 조기에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를 대비하여 중국 농업부문을 상세히 파악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적으로 과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중국 농업부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중국의 과수산업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 사이에서 소득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왔다. 여기에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의 도입 등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배면적 증가속도보다 생산량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노력도 과실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4년 시작된 우세농산물 배치계획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사과와 감귤류를 우세농산물로 지정하고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 농산물의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이 마무리되면 사과와 감귤의 품질은 크게 개선되고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노동력의 저렴한 임금과 낮은 토지 임차료는 중국 과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원천이 되었다. 중국 과수산업은 저렴한 임금과 임차료를 배경으로 국제시장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높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2002년 11월에 ASEAN과 FTA를 체결을 위한 경제협력(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마카오(Macao)와도 CEPA를 체결하였다. 2003년에는 홍콩과 CEPA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파키스탄 및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도 적극적이어서 ASEAN 회원국들과는 관세 조기 감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도입하여 조기에 농산물 관세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통시스템의 미비, 저온저장고 시설의 부족, 냉장 유통시스템의 부족,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 등으로 신선 과실의 수출이 한계를 보이자 가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냉동 농축 사과주스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랐다. 생산된 사과주스의 90% 이상이 수출되며, 미국 시장에서 브라질의 수

출을 추월하였다. 최근에는 오렌지 주스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오렌지 가공산업도 조만간 국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여건도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다.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중국도 더 이상 예전만큼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지역과 산동성을 비롯한 연안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산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의해 세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중국발 농업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산 과실도 과거처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전망이다.

현재 중국산 과실은 식물검역상 양벚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사과와 배는 중국이 2004년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 1단계인 접수(filing)된 상태이다. 중국이 여러 해충의 유병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전지역에 대한 수입은 쉽지 않더라도 양벚과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금지 해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산 신선 과실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과급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산 과실이 수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 정책을 수립하고 농가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An Analysis of the Chinese Fruit Industry and the Possibility to Export to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inese fruit industry to prepare for a Korea-China FTA(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China initiated a preliminary study in which analyzes the potential effects of a Korea-China FTA. Though it is not expected that an Korea-China FTA begins immediately, it is sure that the FTA will start in near future. Because the Chinese fruit industry have the strong price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 it would be big challenges to the Korean fruit industry if the Chinese fruits are imported to Korea. So far, it has been known that the quality of the Chinese fruits is lower than that of the fruits produced in Korea. However, the quality of the Chinese fruits has improved much than before with assistance invest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ntroduction of new varieties and technology. With pric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improvement, the Chinese fruits have even stronger competitiveness. That means that the Chinese fruits are even bigger challenges to the Korean fruit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reallocation program for apple and citru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specific commodities and regions to take advantages of climate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rogram,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onvert old-type varieties and practice to high-yield varieties and modern practice. The progra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to pear and grapes.

To promote export of th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he Chinese government negotiated several FTA with ASEANs, Chile, Macao, Pakistan, and Hong Kong. In particular, China implemented the Early Harvest Program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TA with ASEANs. The Program ended in 2006 and the agricultural trade between China and ASEANs was boosted.

So far, the Chinese fruits are banned to be imported because of plant quarantine except for cherry. Apple and peas are in the process of PRA(Pest Risk Analysis) with the applic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us, the ban for the Chinese fruits would be removed in some future. The Korean fruit

industry should be prepared the case where the Chinese fruits will be imported.

Researchers: Yun-shik Kim

Research period: 2007. 7. - 2007. 12.

E-mail address: yunshik@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선행 연구 검토 3

제2장 중국 과수산업의 동향과 정책

- 1.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5
- 2. 소비 동향 7
- 3. 유통 동향 9
- 4. 수출입 동향 및 정책 11

제3장 사과 산업

-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
- 2. 생산비 및 가격 23
- 3. 가공산업 24
- 4. 유통 26
- 5. 사과 수출입 27
- 6. 정부 정책 31
- 7. 중국산 사과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33

제4장 감귤 산업

-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39
- 2. 생산비 및 가격 42
- 3. 가공산업 44
- 4. 감귤류 및 주스 소비 46

5. 감귤류 유통	49
6. 수출입	51
7. 정부 정책	57
8. 중국산 감귤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61

제5장 배 산업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65
2. 생산비 및 가격	69
3. 가공산업	71
4. 유통	71
5. 수출입 현황	72
6. 정부 정책	75
7. 중국내 한국산 배 생산 실태	76
8. 중국산 배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79

제6장 포도 산업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83
2. 수출입	87
3. 중국산 포도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90

제7장 기타 과실

1. 복숭아	93
2. 단감	95

제8장 식물 검역과 과수 수출입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102
-------------------	-----

참고 문헌	105
-------------	-----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중국의 과실류 재배면적 동향, 1995-2005	6
표 2- 2. 중국의 과실류 생산량 동향, 1995-2005	6
표 2- 3. 중국의 과실류 수출입 동향, 1990-2005	2· 1
표 2- 4. 식물검역상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	3
표 2- 5. 주요 과실의 수입 관세율	5
표 2- 6. 주요 과실에 부과되는 중국 관세, 2007	71

제3장

표 3- 1. 사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0· 2
표 3- 2. 사과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1· 2
표 3- 3. 사과 농축 주스 생산 현황, 2002-2007	5· 2
표 3- 4. 중국 사과의 국가별 수출 동향, 2002-2006	8· 2
표 3- 5. 중국 농축사과주스의 국가별 수출 동향, 2002-2006	9· 2
표 3- 6. 중국의 국별 사과 수입, 2002-2006	1· 3
표 3- 7. 국산 후지와 중국산 후지사과의 품질 비교	5
표 3- 8. 한국과 중국의 사과 생산비 비교	5
표 3- 9. 시나리오별 중국산 사과의 수입가격	6

제4장

표 4- 1.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9· 3
표 4- 2. 감귤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0· 4
표 4- 3. 감귤류별 생산 현황, 2001-2005	1· 4
표 4- 4. 감귤류 단위 면적당 생산비	4

표 4- 5.	감귤류 연간 1인당 소비량, 2003-2006	7· 4
표 4- 6.	중국 감귤류 수출 현황, 2002-2006	2· 5
표 4- 7.	중국의 국별 신선오렌지 수입 현황, 2005-2006	3· 5
표 4- 8.	중국의 국별 신선 탄저린 수출 현황, 2005-2006	5· 5
표 4- 9.	중국의 국별 농축오렌지 주스 수입 현황, 2005-2006	6· 5
표 4-10.	중국의 국별 신선오렌지 수출 현황, 2005-2006	6· 5
표 4-11.	국산 감귤과 중국산 감귤의 품질 비교	8
표 4-12.	한국과 중국의 감귤 생산비 비교	8
표 4-13.	시나리오별 중국산 감귤의 수입가격	4

제5장

표 5- 1.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6· 6
표 5- 2.	배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7· 6
표 5- 3.	중국의 국별 배 수출, 2002-2006	2· 7
표 5- 4.	품종별 배 수출 동향, 2000-2005	3· 7
표 5- 5.	배 생산량 중 수출 점유율, 1999-2004	4· 7
표 5- 6.	국산 배와 중국산 배의 품질 비교	8
표 5- 7.	시나리오별 중국산 배의 수입가격	8

제6장

표 6- 1.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4· 8
표 6- 2.	포도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5· 8
표 6- 3.	식용 포도 수출입 규모, 2004-2006	7· 8
표 6- 4.	중국의 국별 식용포도 수출, 2002-2006	8· 8
표 6- 5.	중국의 국별 식용포도 수입, 2002-2006	9· 8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 1. 중국의 과실별 생산 비중, 2005 7
 그림 2- 2. 중국의 과실류 유통 경로 0

제3장

- 그림 3- 1. 지역별 사과 생산 비중, 2006 12
 그림 3- 2.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변화, 2000-2006 2· 2
 그림 3- 3. 사과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3· 2
 그림 3- 4. 중국의 사과 특화지역 2
 그림 3- 5. 한국과 중국 사과의 단수 비교 4

제4장

- 그림 4- 1. 감귤의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0· 4
 그림 4- 2. 지역별 감귤류 생산 비중, 2006 14
 그림 4- 3. 감귤류 도매시장 가격 추이, 2004-2007 4· 4
 그림 4- 4. 감귤류 유통 경로 0
 그림 4- 5. 중국의 감귤 특화지역 8
 그림 4- 6. 한국과 중국 감귤류의 단수 비교 2

제5장

- 그림 5- 1. 배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6· 6
 그림 5- 2. 지역별 배 생산 비중, 2006 86
 그림 5- 3. 사과와 배의 수출가격 비교 0
 그림 5- 4. 한국과 중국산 배의 단수 비교 9

제6장

그림 6- 1. 포도의 생산량과 단수, 1993-20064· 8
그림 6- 2. 지역별 포도 생산 비중, 200668
그림 6- 3. 한국과 중국산 포도의 단수 비교9

제8장

그림 8- 1.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치 해제절차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근년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FTA는 미국과의 FTA보다 국내 과실 산업에 미칠 과급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에서 한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세번 분리, 계절 관세 도입, 장기간의 관세 양허 및 SG(Safeguard: 긴급구제제도) 적용 기간 적용 등의 상당한 보호조치를 인정받았다. 오렌지에는 계절관세가 도입되었고, 사과와 배는 세번을 분리하며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지와 일반 사과를 분리하고 동양배와 일반배를 분리하여 양허 및 SG를 별도로 적용받도록 합의되었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고려하여 추정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로 인한 국내 과실산업이 입게 될 영향은 생산액 기준으로 FTA 발효 후 5년차에 993억 원, 10년차에 1,933억 원, 15년차에 2,787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 과실의 품질은 우리나라 과실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한국까지 수출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멀어 수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수송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

워 운송상의 문제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실의 품질 차이도 크지 않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소비 취향이 우리나라 소비자와 비슷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대부분의 과실이 중국에서도 생산된다. 미국에서는 동양배보다는 서양배, 감귤보다는 오렌지, 후지보다는 다른 품종의 사과 소비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과실이 모두 생산된다.

중국의 사과와 사과주스는 과실류 중에서 현재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품목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2~04년 기간 중국의 신선 과실 수출액은 5억 500만 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사과의 수출액이 2억 1,100만 달러로 52%를 차지하였다. 2004년 기준 중국의 사과 수출량은 80만 톤을 넘어섰으며, 사과주스의 수출량도 50만 톤에 이른다. 이러한 중국의 사과 수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사과 생산량이 37만 톤임을 감안하면 국내에 중국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은 온주밀감의 원산지인 절강성을 포함하여, 광둥성, 사천성, 복건성 등지에서 1,0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이중 약 30만 톤(2004년 기준) 정도가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고 있는데, 수입 제한 조치만 해제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감귤 생산량이 약 60만 톤 내외임을 고려하면 소량이라도 국내에 유입되면 감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배는 현재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산동성에 이미 진출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제한 조치만 해제되면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과실이 수입될 경우 국내 과실을 대체하는 정도는 미국산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중국의 과수산업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FTA 협상시 좀더 면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데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들어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중국에 특화된 연구라기보다는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이 많았다. 개방화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초점은 국내산업이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가 김경필 외(2006)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대응한 우리나라 과일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로, 주요 과실(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6개 과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연구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연구는 박문호 외(2006)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과수산업을 생산부터 수확 및 수출까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국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과수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과수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농협중앙회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단편적인 현지조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중국사무소). 이들 보고서는 하나의 품목을 생산, 유통, 무역, 정책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과실의 경우에는 다른 과실과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한 과일만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과실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중국 과수산업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의 초점은 아시아의 경쟁시장(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의 과일이 미국산 과일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중국산 과일이 어느 정도 미국산 과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가에 있다(Huang and Gale 200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쟁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관건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주요 관심대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는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농업자원연구소(ABARE: th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에서도 중국의 과일에 대해 일부 연구한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에는 호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감귤류, 과일 주스, 포도 등만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과, 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Chester 2006).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우리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중국 과수산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중국 과수산업의 동향과 정책

1.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중국의 과실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20%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5대 과실은 사과, 감귤류, 배, 바나나, 포도 등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사과, 감귤, 배의 비중이 높다. 사과, 배, 감귤의 생산량을 합하면 중국 전체 과실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과수 재배면적은 1995년에 809만 ha에서 2005년에 1,003만 ha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재배면적이 연평균 2.2%씩 증가한 것으로 과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과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감귤의 재배면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에는 사과 재배면적에 근접하고 있다. 배의 재배면적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포도로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연평균 10.3%씩 증가하였다. 배와 감귤의 재배면적은 각각 2.6%, 3.5%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주요 과실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반면, 사과의 재배면적은 동기간 연평균 4.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국의 과수 재배면적 동향, 1995-2005

단위: 천 ha

품 목	1995	2000	2003	2004	2005	연평균증가율 (1995-2005)
과실 전체	8,091	8,932	9,436	9,762	10,035	2.2%
사과	2,948	2,254	1,900	1,877	1,890	-4.3%
배	859	1,015	1,061	1,079	1,112	2.6%
포도	153	283	420	414	408	10.3%
감귤	1,214	1,272	1,506	1,627	1,717	3.5%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資料年鑒」 각년도. 中國統計出版社

과수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과실 생산량은 4,215만 톤에서 8,83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차이는 연평균 증가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재배면적은 연평균 2.2%씩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7.7%씩 증가하였다. 이는 과실류의 단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2-2. 중국의 과실류 생산량 동향, 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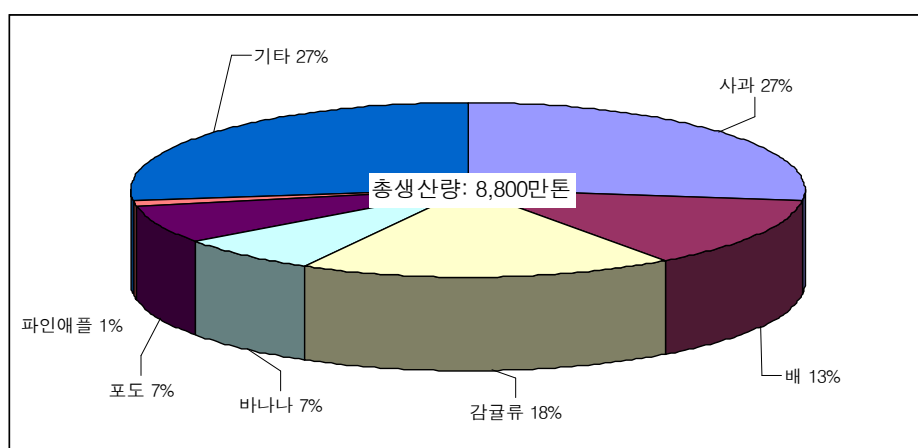
단위: 천톤

품 목	1995	2000	2003	2004	2005	연평균증가율 (1995-2005)
과실 전체	42,146	62,251	75,516	83,941	88,355	7.7%
사과	14,008	20,431	21,102	23,675	24,011	5.5%
배	4,942	8,412	9,798	10,642	11,324	8.6%
포도	1,742	3,282	5,176	5,675	5,794	12.8%
감귤	8,225	8,783	13,454	14,958	15,919	6.8%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資料年鑒」 각년도. 中國統計出版社.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실은 사과이다. 2005년의 경우 전체 과실 생산량 가운데 27%가 사과였다. 다음으로 감귤류의 생산이 많은데 18%를 차지하였다. 배와 바나나는 각각 13%와 7%를 차지하였다.

그림 2-1. 중국의 과실별 생산 비중, 2005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資料年鑒」 각년도. 中國統計出版社.

생산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과실은 포도와 배이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감소함에도 생산량이 증가하여 단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와 감귤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8.6%, 6.8%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과실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05년 사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ha당 12.7톤이었지만, 뉴질랜드는 45.1톤, 벨기에는 35.9톤, 네델란드는 32톤, 프랑스는 31.3톤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단수를 비교하면, 중국 과수 산업의 생산성이 아직까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소비 동향

중국의 과실과 채소 시장 규모는 2000년에 5,484억 위안에서 2004년에 7,538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DataMonitor 2005). 이 가운데 채소가 57.6%를 차지하고 과실이 42.4%를 차지한다. 중국의 과실과 채소 시장은 2009년쯤에 2000년 시장 규모의 2배 정도가 증가하여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41kg이던 중국 도시 소비자의 1인당 과일 연간 소비량은 2005년에 57kg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60kg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kg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세계 평균 소비량 수준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90% 이상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소비자는 소득이 1% 상승하면 과일에 대한 지출을 1.5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hields and Huang 2004). 또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도시소비자의 과일 소비에 대한 지출은 하위 10%의 소비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과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과실을 고를 때 외형이나 향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식품안전성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자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과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대형 소매점들이 판매하는 과실은 좀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점상 대신 대형 소매점을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자들은 안전한 고품질 과실을 요구하면서도 가격은 높게 지불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과일 주스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차 중심의 문화지만 최근 도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차 대신 과일 주스나 과일 음료수를 소비하는 새로운 패턴이 정착하고 있다. 2006년에 23억 리터의 과일주스와 음료수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8%나 증가한 수준이다.

과일의 60~70%는 신선과실 형태로 소비되며, 전체 과일 생산량의 10% 정도만 가공용으로 이용된다. 폐기되는 과일의 비중이 20~30%에 이르는데, 이는 수확 후 기술의 부족, 냉장시설 부족 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 유통 동향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의 추정에 따르면, 2004년 채소의 평균 이윤은 무당 1,563위안, 사과는 943 위안인 반면, 곡물의 평균 이윤은 197위안밖에 되지 않는다.¹ 이러한 수익성 차이 때문에 향후에도 채소와 과실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역시장 형태임과 동시에 산지수매시장, 산지와 판매지 도매시장 및 판매지 소매시장의 일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농촌에서 재배되는 과실과 채소는 주로 재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된다. 농촌 재래시장은 거래량이 비교적 적어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대부분 소비되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과실상인들은 산지의 재래시장에서 과실을 구매한 후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산지 수매시장은 농민이 농산품을 판매하는 초급단계시장으로서 1급 시장이라고도 한다. 오랫동안 국유상업과 농촌합작사는 수매시장의 주요 주체였지만 독점지위가 해체된 후 그 시장점유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농산물 가공기업이 수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민들이 운송을 조직하여 판매하는 것과 농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외에 2006년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전국에 총 6,000여 개가 있다. 그 가운데 과실 도매시장은 1,000여 개(도시에 612개, 농촌에 400개 정도)가 있다. 이들 시장은 대체적으로 산지 도매시장과 판매지 도매시장으로 구분된다.

산지도매시장은 생산기지와 도매시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과실 생산기지에는 모두 도매시장이 설치되어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산물을 팔 수

¹ 1무(畝)는 우리나라의 200평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1무=6.67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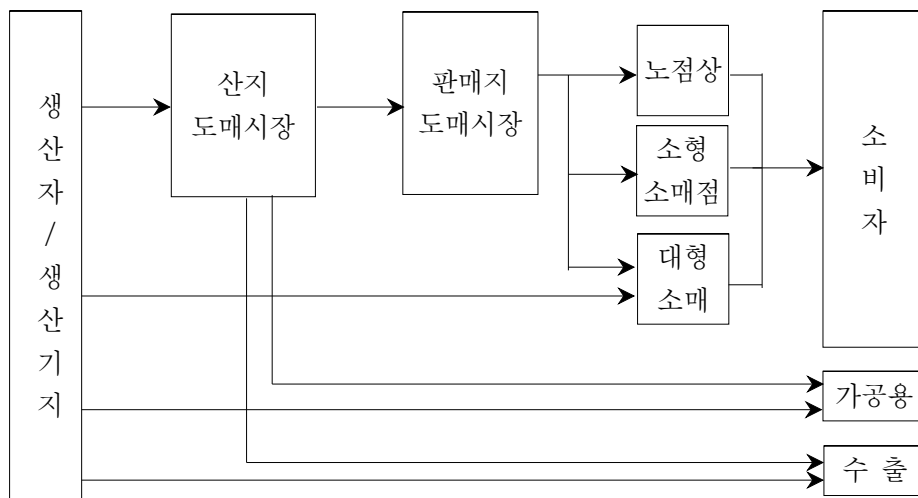
있도록 하고 있다. 판매지 도매시장은 중국 과일 교역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지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다.

중국 과일 소매시장은 도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소매상은 크게 소형소매점, 노점상, 현대화된 대형소매점 등으로 나뉘는데, 소형 소매점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합매장, 슈퍼, 체인점 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확기가 되면 전국에서 유통상인이나 수집상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매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물량은 산지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집무시장이나 민간 도매업자를 통해 판매된다. 산지의 집무시장에 출하된 과실은 다시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 유통된다. 대형유통업체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과수원 전체를 수집상이 매입한 후 도매상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집무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2. 중국의 과일류 유통 경로



과거 중국은 유통시설이 열악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이 많았다. 또한 저장 시설이 부족하여 수확기에 대규모 물량이 집중 출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수확기에 가격이 폭락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최근 저온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창고 이용료는 톤당 300 위안 수준이다.

대형수퍼매장 등 소매기업은 생산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중간의 유통단계를 줄여 원가를 낮추고 상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식품음료가공기업은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과실을 생산기지, 판매회사 및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한다. 일부 대형 음료 가공기업은 자체의 생산기지에서 생산하거나 직접 재배지와 합작하여 “재배·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4. 수출입 동향 및 무역 정책

4.1. 수출입 동향

중국의 과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급 신선 과실과 과실 가공품 수출도 증가 추세이다. 사과와 배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5대 과실의 수출량은 1990년 10만 톤에서 2005년 166만 톤으로 15년 사이에 16배로 증가하였다.

사과는 1990년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았으나 1995년 이래 순수출 품목으로 전환되어 2005년에는 82만 톤이 수출되었다. 감귤 수출량은 1995년 13만 톤에서 2005년 4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포도는 1990년에 700톤에서 2005년에 3만 5,000톤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가 많아 여전히 순수입 품목이다. 배 수출도 같은 기간 4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과실 수입량은 같은 기간 12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포도를 제

외하면 수출량 대비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배와 복숭아는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감귤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과실 수입액은 5억 9,000만 달러로 1990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수출(16억 5,000만 달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표 2-3. 중국의 과실류 수출입 동향, 1990-2005

단위: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사과	수출	62.4	108.9	297.7	824.1
	수입	98.0	13.7	25.5	33.2
배	수출	44.3	90.1	146.4	368.3
	수입	3.6	0.2	0.6	0.1
포도	수출	0.7	4.9	1.6	34.6
	수입	14.4	5.0	53.2	68.8
감귤	수출	0	131.8	191.4	426.1
	수입	0	2.2	53.3	53.9
복숭아	수출	0.8	1.6	2.4	17.1
	수입	0	0.2	1.0	0.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06.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과거 중국 과실은 수확 후 처리기술, 저장, 수송 등의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과실의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사과, 감귤류, 식용포도 등의 품질 개선 속도가 빠르다. 중국산 과실 가격은 다른 나라의 과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과실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주요 과실의 경우 식물 방역법 상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칠레, 호주 등 6개국이 수출할 수 있는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 및 품종 제한을 받는다. 일본과 뉴질랜드산 사과는 지역과 품종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포도는 미국, 칠레, 뉴질랜드 등 3개국, 배는 뉴질랜드와 일본 등 2개국에 한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상태이다.

오렌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 4개 지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그 외 태국, 우루과이, 남아공 등이 오렌지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체리는 미국과 뉴질랜드 2개국만이 중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

표 2-4. 식물검역상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

	국가수	수출 가능 국가
사과	6	미국(지역과 품종 제한), 프랑스(지역과 품종 제한), 일본, 뉴질랜드, 칠레(지역 제한), 호주(Tasmania)
배	2	뉴질랜드, 일본
만다린/ 탄저린	5	미국(캘리포니아 일부,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뉴질랜드, 태국, 우루과이, 남아공
오렌지	5	미국(캘리포니아 일부,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뉴질랜드, 태국, 우루과이, 남아공
포도	3	미국(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칠레(지역 제한), 뉴질랜드
체리		미국(워싱턴, 아이다호, 오레곤), 뉴질랜드

자료: USDA/FAS. "China Fruit Entry List," GAIN Report, 2004.

4.2. 자유무역협정(FTA)

2007년 말 현재 중국이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이미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ASEAN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다. 2002년 11월에 중국과 ASEAN 회원국들은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기본틀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과 ASEAN 회원국간 완전한 의미의 FTA는 2010년에 완성되며, ASEAN의 4개 신규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5년을 연장하여 2015년까지 완료된다. 2004년 11월에는 상품 교역에 대한 협정에 합의하였다.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두 번째 FTA는 칠레와의 FTA이다. 칠레와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이후 5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5년 10월 말에 합의에 도달하였고 11월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 10월에 중-칠레 FTA는 정식 발효되었다.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세 번째 FTA는 파키스탄과의 FTA이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2005년 4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모두 6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2006년 11월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중국-파키스탄 FTA에 따르면, 양국은 2개의 국면(phase)을 통해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제1국면은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5년간으로 이 시기 동안 전체 상품의 85%에 대해서 관세를 감축하고 그 가운데 36%는 3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이 기간에 주로 관세가 감축되는 농수산물은 중국의 경우에는 축산물, 수산물, 채소 등이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쇠고기, 양고기 등이다. 제2국면에서는 제1국면에서의 관세 인하 결과를 재검토하여 90% 이상의 품목의 관세가 감축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마카오 및 홍콩과 밀접한 경제협력 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였다.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는 2004년 1월에 시작되었다. CEPA를 통해 1,370개의 홍콩 상품과 601개의 마카오 상품이 무관세로 중국 본토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경제로의 통합을 촉진시켰다.

4.3. 무역 정책

4.3.1. WTO 가입에 따른 양허

중국은 2001년에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면서 2004년까지 감축하기로 약속했던 관세 감축을 완료하였다.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관세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선포도의 실효세율은 27.7%이지만 2004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가 각각 13.0%였다. 신선 사과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은 24.3%이지만 관세는 10.0%에 VAT 13.0%이다. 배는 품종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압리(押梨, Ya Pear), 설리(雪梨, Snow Flake Pear), 향리(香梨, Fragrant Pear)와 기타로 구분되어 각각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표 2-5. 주요 과실의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품목	2003			2004		
		관세	VAT	실효세율	관세	VAT	실효세율
0806.10	신선 포도	18.4	13.0	33.8	13.0	13.0	27.7
0808.10	신선 사과	14.0	13.0	28.8	10.0	13.0	24.3
0808.2012	신선 배(鴨梨 또는雪梨)	15.6	13.0	30.6	12.0	13.0	26.6
0808.2013	신선 배(香梨)	15.6	13.0	30.6	12.0	13.0	26.6
0808.2019	신선 배(기타)	14.0	13.0	28.8	10.0	13.0	24.3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4.

4.3.2. 관세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최근 중국은 일부 국가들에게 특혜관세를 줌으로써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ASEAN 국가들과 실시한 관세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들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과, 포도, 오렌지, 체리, 복숭아 등에 부과되는 관세는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8~12%까지 부과된다.

2005년 8월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15개 품목의 과일(파인애플, 파파야, 복숭아, 코코넛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도 하였다. 기존에는 대만에서 수입되는 이들 품목에 대하여 10~25%의 관세가 적용되었었다.

◆ 관세 조기 철폐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2002년에 중국과 ASEAN 국가들(부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체결 내용에 따르면,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은 2010년에야 완성된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Early Harvest Program(EHP)이 시작되었다. EHP의 핵심은 과일, 채소, 수산물 등 6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2006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중국 관세 통계에 따르면, EHP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ASEAN 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ASEAN에서 중국으로의 EHP에 따른 수입액은 46.6%로 증가하였고, ASEAN으로의 수출은 31.2%로 증가하였다. 또한 EHP 이후 중국의 사과 수출은 ASEAN 시장에서 1999년에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사과, 감귤, 배 등의 신선과실을 수출하는 대신 바나나, 용안, 망고,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실을 수입한다. 2005년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사과 39만 톤, 배 22만 톤, 감귤 31만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실 전체 수출량의 47%, 60%, 66%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중국은 또한 ASEAN 국가들로부터 바나나 34만 톤, 용안 14.3만톤 등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실 전체 수입량의 96%, 100%에 해당된다.

2006년 10월에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칠레와의 FTA를 통해 칠레산 과실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최혜국(MFN: Mostly Favored Nation)에 적용되는 관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사과와 감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는 100%인 반면 ASEAN 국가들에게는 0%, MFN에는 10%, 칠레산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된다.

표 2-6. 주요 과일에 부과되는 중국 관세, 2007

단위: %

	ASEAN ¹	Chile	MFN	기타국
오렌지	0/8	8.8	11.0	100.0
그레이프푸르트	0/8	9.6	12.0	100.0
레몬	0/8	8.8	11.0	100.0
포도	0	10.4	13.0	80.0
사과	0	8.0	10.0	100.0
살구	0/12	20.0	25.0	70.0
체리	0/8	6.0	10.0	70.0
복숭아	0/8	6.0	10.0	70.0
자두	0/8	6.0	10.0	70.0
딸기	0/12	14.7	18.4	80.0
키위	0/12	16.0	20.0	80.0

주: 1)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ASEAN 회원국들에게는 모든 과실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베트남산 그레이프푸르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료: USDA, GAIN Report, CH7610.

4.3.3. 과실류 수입에 부과되는 조건

2004년 8월 6일 중국 정부는 “신선과실의 검사, 검역, 감독 등의 수입 요건에 대한 행정조치(Administrative Measures for Inspection, Quarantine, and Supervision of Its Entry Requirements for Fresh Fruits)”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수입검역허가서(QIP: Quarantine

Import Permit)와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과실의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과실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계약을 하기 전에 6개월간 유효한 수입검역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수입검역허가서 신청시 식품위생 검역 요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입검역허가서가 사실상 수입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는 수입업체가 사전에 어느 항을 통해 수입할 지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실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중국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실의 포장과 팻릿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마른 잎이나 나뭇가지는 전혀 허용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교역이든 불법적인 교역이든 홍콩을 경유하는 회색채널(grey channel)을 통한 교역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지고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전보다 유통비용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장

사과 산업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과 생산국으로 생산량은 세계의 33%, 면적은 40%를 차지한다(중국 우수농산물 지역 배치계획). 또한, 사과 주스 수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사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2월에 발표된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11개 대상 품목에 사과를 포함시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과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70년 말 개혁개방 정책 이후부터이다. 당시 사과가 중국 농민들 사이에 소득작물로 인식되면서 지역별 적합성이나 경쟁력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국 전역에 걸쳐 사과 재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사과 가격이 좋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생산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가격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사과 재배지역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과 재배에 적절치 않은 지역은 다른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수량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도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국의 사과 생산량은 다소 변화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9년과 2000년경에 최대에 이른다. 이후 2~3년간 생산량이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6년에는 2,6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7년 생산량은 2006년보다 12% 감소한 2,300만 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생산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과의 최대 생산지인 산동성과 섬서성의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봄철에 두 지역에는 차고 건조한 날씨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사과의 개화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섬서성은 수확철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당도와 외형이 평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사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배면적	2,254	2,066	1,938	1,900	1,877	1,890	1,899
생산량	20,431	20,014	19,241	21,002	23,675	24,011	26,059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사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225만 ha에 이르던 사과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2002년 이후에는 약 190만 ha에 정체되어 있다. 사상 최대 물량의 사과가 생산되었던 2006년에도 재배면적은 약 190만 ha였다. 2007년에는 높은 가격과 주스용 사과의 수요가 급증하여 재배면적이 2006년보다 조금 증가한 195만 ha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산동성과 섬서성의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06년에 두 지역의 생산량을 합하면 1,340만 톤으로 중국 전체 사과 생산량의 51.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하남성과 하북성 등의 사과 생산량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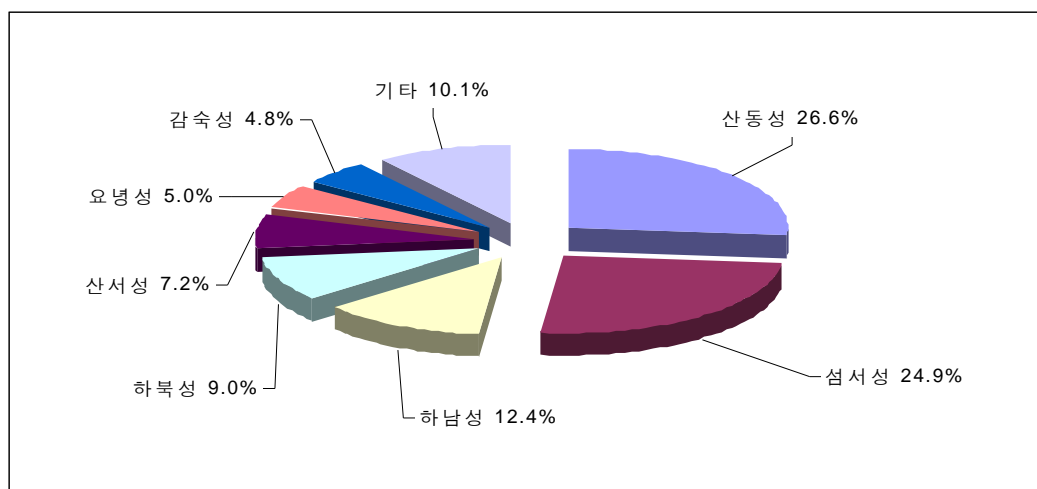
표 3-2. 사과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톤

	전체	산동성	섬서성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2000	20,431	6,477	3,886	2,389	1,806	1,630
2001	20,015	6,164	3,913	2,524	1,845	1,552
2002	19,241	5,000	3,922	2,604	1,966	1,724
2003	21,102	6,119	4,618	2,510	2,003	1,802
2004	23,675	6,691	5,552	2,869	2,143	2,021
2005	24,011	6,717	5,601	3,006	2,202	1,648
2006	26,059	6,930	6,500	3,228	2,358	1,867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그림 3-1. 지역별 사과 생산 비중,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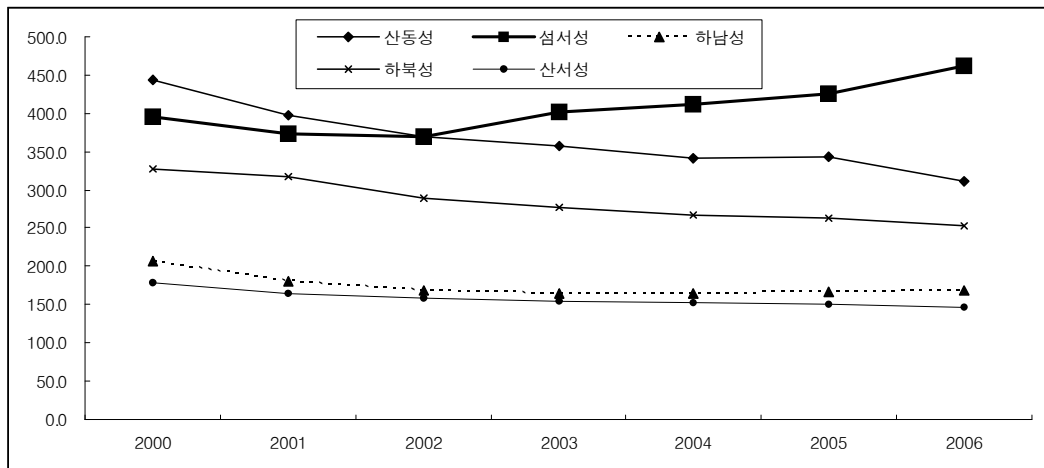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7.

지역별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데 섬서성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중국 최대의 사과생산지는 산동성이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최대 생산지가 섬서성으로 바뀐다. 이후에도 산동성의 사과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섬서성의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섬서성의 사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사과 재배에 적절한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주스용 사과의 수요가 증가한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과 수요가 급증하자 섬서성 곳곳의 언덕이나 골짜기 등에 사과 과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섬서성의 황토고원(黃土高原, Yellow Plateau)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 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변화, 200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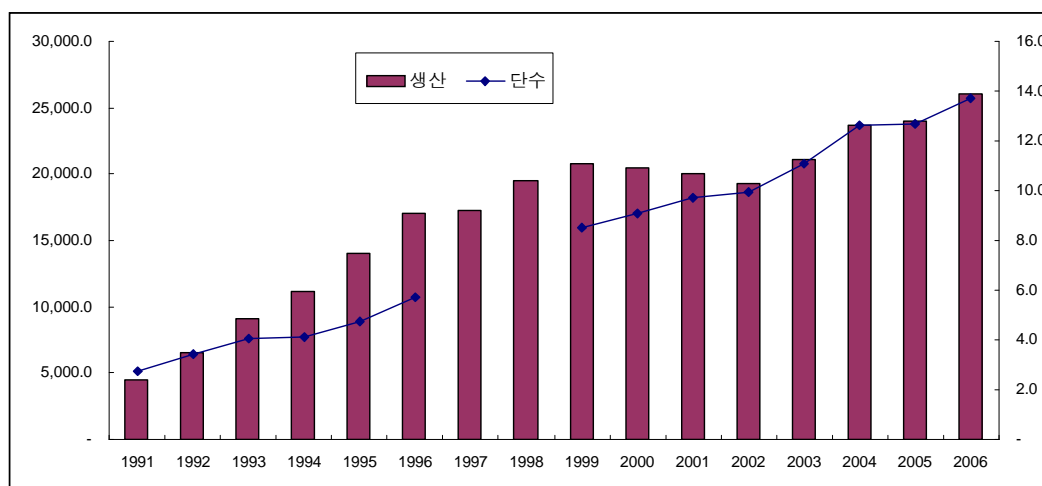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 사과 생산의 특이한 점은 재배면적은 감소하는데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사과의 단수는 1991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1.4%씩 증가하여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²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다수확 품종의 보급, 기술 개발 등의 원인도 있지만, 1980~1990년 식재된 유목이 성목으로 바뀐 것이 주원인이다. 성목 면적의 증가로 1990년 들어 사과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사과 재배면적 가운데 유목 면적의 비중이 35%에 이르렀다. 아직도 유목

² 1997년과 1998년의 면적자료가 없어 이 두 해의 단수는 제외되었다.

그림 3-3. 사과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면적이 많아 유목이 성목이 되기까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사과 품종은 후지 품종이다. 후지 사과가 전체 사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조생종인 Gala 품종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리다. Gala 품종은 조생종으로 후지보다 일찍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후지에 비해 소비자의 선호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가격도 후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Jonathan 품종도 조금씩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녹색 사과의 일종인 Granny Smith 품종도 중국에서 점차 인기를 얻어가는 품종 가운데 하나이다.

2. 생산비 및 가격

다른 과실과 동일하게 사과의 생산비도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비료, 농약, 임금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6년에 사과 생산비는 전년에 비해 12.5% 증가하였고, 2007년 비료 가격은 2006년에 비해 25% 상승하였다. 또한, 수리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비와 지하수에 의존하여 관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봄철에는 과원에 물을 공급하는 데 ha당 1,200위안(\$160)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투입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산비도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동지역 사과 재배농가의 2006년 생산비는 \$3,750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의 생산비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농가 수취가격도 상승추세에 있다. 2007년 사과 농가의 수취가격은 kg당 4.6~5.0위안(\$6.1~6.7)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농가 수취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과주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여 주스용 사과의 가격도 일반 사과가격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3. 가공 산업

중국에서 재배되는 사과의 약 20% 정도가 주스로 가공된다. 중국은 최대 사과농축주스(concentrated apple juice) 생산국 가운데 하나이다. 2002년에 39만 5천 톤 수준이던 주스 생산량은 2006년에 97만 톤을 초과하였고 2007년에는 1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사과 주스 가공 능력은 200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 시간당 1,300톤 규모였던 가공 능력이 2006년에는 3,170톤, 2007년에는 5,000톤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사과주스산업은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사과 주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 기업은 중로(中魯, Zhonglu), 해승(海升, Haisheng), 북방안덕

리(北方安德利, North Andre), 항흥(恒兴, Hengxing), 통달(通达, Tongda) 등이다.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사과 주스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 중국 최대의 사과생산업체인 회원(汇源, Hui Yuan)그룹은 2006년에 전체 주식의 35%를 프랑스 Danone 그룹, 미국의 Warbug Pincus 투자그룹, 네델란드의 ABN Amro 은행, Hong Kong Value Partners Fund 등에 판매하여 총 2억 달러를 조성하였다.

중국 사과주스산업은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는 수출 중심 산업이다. 2007년의 경우에도 생산되는 1백만 톤 가운데 93%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다.

중국의 농축사과주스 생산이 급증한 것은 사과 주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렌지 주스 가격의 급등도 사과 주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오렌지 주스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자 상당수의 수요가 사과 주스로 전환되었다. 사과 주스는 직접 소비되기도 하지만 혼합 주스로도 이용된다.

주요 사과주스 생산국의 하나인 폴란드의 생산량 감소도 중국산 사과 주스의 수요를 급등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2007년 폴란드는 극심한 서리 피해로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한정되어 있어 사과 주스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제가격이 톤당 \$1,800 ~ 1,900에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사과 농축주스의 수출가격도 2006년 1월에 톤당 \$790에서 2007년 9월에는 \$1,200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과주스 가격의 상승 추세는 향후 2 ~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표 3-3. 사과 농축 주스 생산 현황, 2002-2007

단위: 천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	395	519	565	540	970	1,000
수출	370	486	527	614	896	930

주: 2005년에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많은 것은 이월 재고량 때문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사과 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의 사과 가공업체들은 사과 구매가격을 지난해보다 2배 높게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만 주스용으로 이용되었지만, 올해는 비상품 외에 일반 사과도 가공용으로 구매되고 있다. 가공업체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스용 사과 가격은 2007년에 톤당 1,550위안(\$207)까지 상승하였다. 2006년에 가공업체의 구매가격이 톤당 \$56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2007년도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1톤의 주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톤의 사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구매가격 수준에서 보면 주스 1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449이므로 수지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스 가공업체는 사과를 구매할 때 바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높은 구매가격은 주스 가공업체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USDA/FAS).

4. 유통

중국의 냉장유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사과의 경우에는 최근 냉장 저장시설의 확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화된 도매시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의 과실이 거래된다. 과실의 유통 채널도 유통센터, 아울렛, 체인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과실 유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무역회사 및 유통업체들도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가격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 과실의 가격과 저품질 과실의 가격 사이의 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일부 소비자들은 고품질 과실에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한다.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가 봉지에 싸인 과실과 녹색 과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녹색 과실은

화학약품이나 농약 처리를 하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인식해 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또한 과실별 다양한 품종으로 구색을 갖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모양과 색깔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사과와의 경우에도 모양과 색깔이 다른 사과 품종으로 구색을 갖추면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중국에서 사과 공급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과 품종은 후지(Fuji)가 대부분이며, 가격은 미국산 사과 가격의 절반 이하로 형성된다.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최근 들어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6년 감숙성 난주(甘肅省 蘭州)시는 “핑량진귀(平涼金果)”라는 사과 브랜드를 중국 최초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옌타이 사과협회를 들 수 있다. 2006년 옌타이(煙台) 사과협회는 가짜 옌타이 사과를 방지하기 위해 100만톤의 우수 품질의 옌타이 사과에 대하여 진품 확인 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

5. 사과 수출입

사과는 과실류 가운데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저가의 과실은 러시아로 수출되고, 고가의 사과는 홍콩을 비롯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된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 9만 5천 톤이던 러시아로의 수출은 2006년에 14만 1천 톤으로 48%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은 ASEAN 회원국들과 관세 조기완결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실시하여 주요 농산물의 관세를 2년에 걸쳐

폐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2006년 1월에 완결됨에 따라 향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과 수출대상국이지만 이외에도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들이 일부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이다. 2006년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5만 3,000톤의 사과를 수입하였고, 방글라데시는 2만 6,000톤을 수입하였다. 이들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와 네델란드 등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는 국가들이다. 2003년에 싱가포르와 네델란드는 중국으로부터 3만 톤 가량을 수입했지만 최근에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사과 중에서 신선사과보다는 사과주스의 수출이 많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사과 수출의 90% 이상이 사과 농축액이었다. 전체 사과 생산량 중에서 20% 정도가 주스로 가공되며, 주스 생산량은 71만 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만 톤이 수출되며, 대미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한다. 2005년에 독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4. 중국 사과의 국가별 수출 동향,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러시아	95,461	111,670	113,307	124,733	141,232
필리핀	53,145	72,640	62,306	60,938	75,478
인도네시아	42,995	69,364	75,191	87,818	82,204
베트남	63,059	67,476	94,699	97,718	65,029
태국	21,462	63,071	52,661	58,743	57,591
말레이시아	34,789	50,007	49,293	47,963	43,180
카자흐스탄	25,274	38,097	32,347	60,183	40,627
홍콩	20,373	27,532	27,349	26,754	26,180
기타	143,340	208,405	256,555	259,115	272,713
합계	499,903	708,406	773,899	823,988	804,318

주: marketing year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표 3-5. 중국 농축사과주스의 국가별 수출 동향,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121,938	233,476	239,392	227,282	221,960
러시아	42,730	38,294	39,715	62,031	92,721
네델란드	38,716	41,063	33,290	73,430	82,532
일본	38,111	45,328	49,900	67,469	68,282
독일	37,763	33,280	22,056	91,221	63,039
캐나다	25,026	24,016	25,600	27,164	29,721
호주	26,328	25,844	33,739	29,616	28,199
기타	39,516	44,398	42,734	71,536	86,173
합계	370,128	485,699	486,426	649,749	672,627

주: marketing year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은 2001년 이후 세계 최대의 사과 주스 수출국이 되었다. 사과 주스의 수출액은 1992~94년의 500만 달러에서 2002~04년에 2억 5,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사과 주스 수출대상국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출대상국인 신선 사과와는 달리 미국, 독일, 네델란드, 일본 등 선진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선 사과는 수송비용 및 수확 후 처리기술 미흡 등으로 품질 유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일 가공산업이 발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사과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처음으로 칠레에 중국산 사과가 수출되었으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도 검역과정이 끝나 수출이 가능해졌다.

급속하게 늘어난 사과 주스의 수출은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02~04년에 중국 사과주스 수출의 43%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미국 사과협회(the U.S. Apple Association)는 1999년에 중국산 사과주스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0년 5월 이후 중국산 비냉동 사과주스 농축액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 중국산 사과주스 전체가 아니라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제교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반덤핑 부과 대상 기업 중에서 2002년에 5개 업체, 2004년에 10개 업체를 제외시켜 주었다. 중국산 사과 주스는 미국 시장에서 2002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추월하였다. 2004년 현재 미국의 수입 사과주스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56%에 이른다.

수출되는 물량에 비하여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중국도 사과를 수입하고 있다. 식물방역법상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중국으로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칠레, 호주 등 6개국으로 한정해져 있다. 이들 국가도 모든 종류의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품종의 사과만 수출할 수 있다.

2002년에는 5만 톤 정도가 수입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3만 톤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수입량이 다시 5만 톤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사과 품종은 레드 딜리셔스(Red Delicious) 품종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어서 수입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미국산 사과는 주로 선물용으로만 판매된다.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사과 품종은 갈라(Gala) 품종이다. 뉴질랜드 산 갈라 사과는 외형면에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격이 미국산 레드 딜리셔스보다 높아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사과 수입국 가운데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2년에 일본은 중국에 1톤 가량을 수출하였지만 2006년에는 135톤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사과 생산비가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과는 고품질의 고가격 사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중국산 과실과 경쟁할 수 없지만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틈새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수출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3-6. 중국의 국별 사과 수입,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21,655	18,517	19,465	20,599	11,557
칠레	18,894	11,897	12,649	9,691	14,526
뉴질랜드	10,643	6,293	5,101	2,837	4,796
일본	1	15	43	77	135
기타	63	131	0	0	60
합계	51,256	36,853	37,258	33,204	31,074

주: marketing year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6. 정부 정책

2006년에 농업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이후 중국 정부는 과일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수농산물 재배치 계획”이다. 2003년에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사과 재배에 유리한 두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사과 생산에 특화시키려는 정책이다. 유사한 정책이 조만간 배와 포도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동쪽 환발해(環渤海, Bohai Rim) 지역과 서쪽의 황토고원(黃土高原, Yellow Plateau) 지역이다. 발해만 지역에는 산동성 일부, 하북성과 요녕성 등이 포함된다. 황토고원 지역에는 섬서성과 산서성, 하남성, 감숙성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특히, 황토고원 지역의 중심지인 섬서성은 성 차원에서 사과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농가에게는 사과 재배와 유통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해마다 섬서성 정부는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행사 개최도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섬서성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농가와 무역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농가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외적인 지원책도 있다. 사과 봉지에 대한 지원이 그런 사례에 포함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사과 특화지역 농가에 대하여 봉지 씌우기를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2005년에 만들었다. 이 정책에 대상이 되는 사과 재배면적은 산둥성, 섬서성,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등에 걸쳐 8,067ha에 이른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312만 5,000달러를 현금 지원하였다.

그림 3-4. 중국의 사과 특화지역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지만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은 하고 있다. 기술 지원에는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지식 및 사용방법 교육,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농가를 지정하여 기술 및 농법 보급을 추진하기도 한다.

2006년 4월에 농업성은 “농산물 품질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6년 11월에 발효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기본적인 식품안전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존의 규정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규정에서는 농산물의 검사와 집행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기존의 규정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2006년 8월 24일 중국 상업성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동 집약적인 원예산업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과실 가공시설 지원, 미국 및 유럽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국제 인증 획득 및 브랜드 육성도 지원하게 된다.

2006년 7월에는 중국 재무성이 유통시설 현대화, 냉장유통시스템 확충, 도매시장 개선 등에 대하여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보조해주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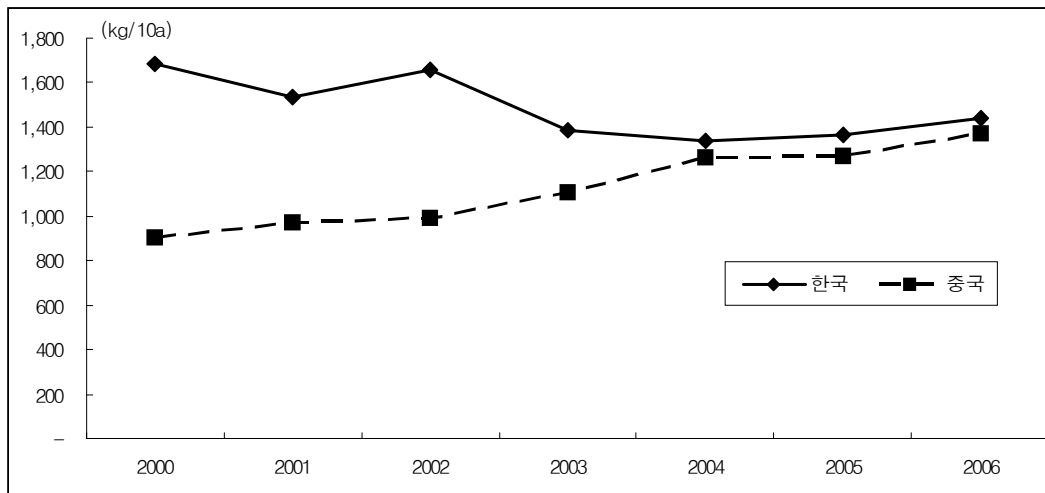
7. 중국산 사과와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사과는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과실 가운데 대표적인 과실이다. 가격경쟁력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품질 개선도 상당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시설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 시설이 개선되고 냉장유통 시스템도 점차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산 사과가 가격 측면뿐만 아니

라 품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사과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산 사과의 불리점의 하나로 더 이상 품질 측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산 사과의 중국산 사과의 경쟁력을 비교해보자. 먼저 단수부터 비교해보자. 2002년 이전에는 중국산 사과의 단수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있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단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단수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10a당 생산량이 770kg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68kg으로 줄어들었다. 6년의 기간 사이에 단수 차이가 1/10로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중국산 사과의 생산성 향상은 신기술의 도입, 신품종의 도입, 농민 교육 등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한국과 중국 사과의 단수 비교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산 사과는 국산 사과의 품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품질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표 3-7. 국산 후지와 중국산 후지사과의 품질 비교

구분	과중 (g)	당도 (Bx)	산함량 (%)	경도 (kg/8mm)	외관		식미		종합
					과형	색깔	육질	향기	
한국산	307	13.8	0.26	3.1	6.6	6.7	6.6	6.5	상
중국산	260	12.3	0.21	3.3	5.8	4.8	5.6	5.4	중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56)에서 재인용.

생산비도 비교해보자. 2005년의 경우 생산비를 비교해보면, 10a당 생산비가 한국은 232만원인데 반해 중국은 22만원에 불과하다. 생산비 차이가 무려 10.7배에 이른다.

표 3-8. 한국과 중국의 사과 생산비 비교

단위: 원/10a

비목별			한국	중국	
				2005년	시나리오 I ³⁾
경 영 비	중 간 재 비	종묘비	112,552	307	461
		비료비	147,889	47,696	64,044
		농약비	210,137	26,720	40,080
		농구비	306,514	3,911	5,867
		수리(水利)비	429	8,062	12,093
		기타중간재비 ¹⁾	355,647	37,197	55,796
	토지용역비		308,395	4,505	9,010
	고용노동비		257,751	27,647	55,294
	축력비		0	194	291
	경영비계(A)			1,699,314	151,239
자가노력비(B) ²⁾			618,475	64,507	129,014
합계(C=A+B)			2,317,789	215,746	371,949
비율(한국/중국)				10.7	6.2

주: 1) 영농광열비, 재료비, 수선비, 위탁관리비의 합계임.

2) 중국은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체 노력비 92,152원의 30%를 고용노력비, 70%를 자가노력비로 산정함.

3) 임금과 토지용역비는 2배 상승, 나머지 항목들은 5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농촌진흥청. 「주요국별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 2005.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빨라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각항목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았다. 고용노동과 자가노동을 포함한 노동비, 토지 용역비는 2배로 상승하고 기타 비용은 50%만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중국의 생산비는 37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여전히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생산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에 수입이 될 지 살펴보자. 현재 수입 사과에 부과되는 관세는 45%이다. 하지만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수입가격을 추산해 보았다.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산 사과는 중국산 사과에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추가 감축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시나리오별 중국산 사과의 수입가격

단위: 원/kg

구분	국내산 가격	중국산 사과의 수입가격		
		현행관세 유지	50% 철폐	완전 철폐
사과 가격	1,654	1,276	1,078	880

자료: 김정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55)을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중국 정부가 사과부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할 만한 물량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과 생산량은 약 40만 톤 수준이다. 중국의 연간 신선 사과 수출량은 80만 톤이 넘는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수출된다. 따라서 적은 물량이라도 국내에 수입된다면 국내 사과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과는 국내산 가을 생산 과실과도 대체관계에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중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 사과뿐만 아니라 타품목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FTA가 체결되면 양허에서 제외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는 장기 혹은 단기에 걸쳐 0%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허용될 경우 45%의 관세로는 중국산 사과와 국내에서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입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서도 사과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양허받은 수준인 20년 동안 균등 감축 조건(후지사과)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면 사과 주스의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주스는 국내 관련 업계와 신선 사과의 고정된 수요처임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FTA에서처럼 최소 10년 이상의 양허기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제 4 장

감귤 산업

중국의 감귤 재배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생산량은 브라질(24%)과 미국(16%)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중국의 감귤 생산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1982년경에 생산량이 100만 톤을 초과한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연간 생산량이 1,000만 톤을 초과하였다. 1982년 이후에는 매 4년마다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의 감귤류 생산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절강성은 온주밀감과 풍강, 광둥성은 온주밀감, 강서성은 오렌지, 복건성은 풍강의 주요 생산지이다. 강서성의 감남(赣南) 네이블 오렌지 단지는 면적이 9만 1,000ha로 중국 최대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렌지의 생산·저장·가공·판매를 일원화함으로써 강서성을 오렌지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감남 네이블 오렌지’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복건성은 영춘(永春)을 중심으로 풍강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춘 풍강’의 수출량은 복건성 전체 감귤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전통적으로 감귤류 생산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갖춘 절강성은 감귤 생산량 순위는 중국내 3~4위 수준이지만 품질과 브랜드 등에서 대표적인 주산지이다. 특히, 중경과 복건성 등 과거 감귤 생산지들이 오렌지로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데 비해 절강성은 감귤 생육에 알맞은 기온으로 인해 감귤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수량 증가로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귤 재배면적은 1991년에 110만 ha에서 2000년에 127만 ha, 2006년 181만 ha로 증가하였다.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630만 톤에서 1,790만 톤으로 2.8 배 증가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감귤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도 원인이 있지만 감귤류의 높은 수익이 주요 원인이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감귤의 단수는 연평균 3.8%씩 증가하였다. 사과와 비교하면 감귤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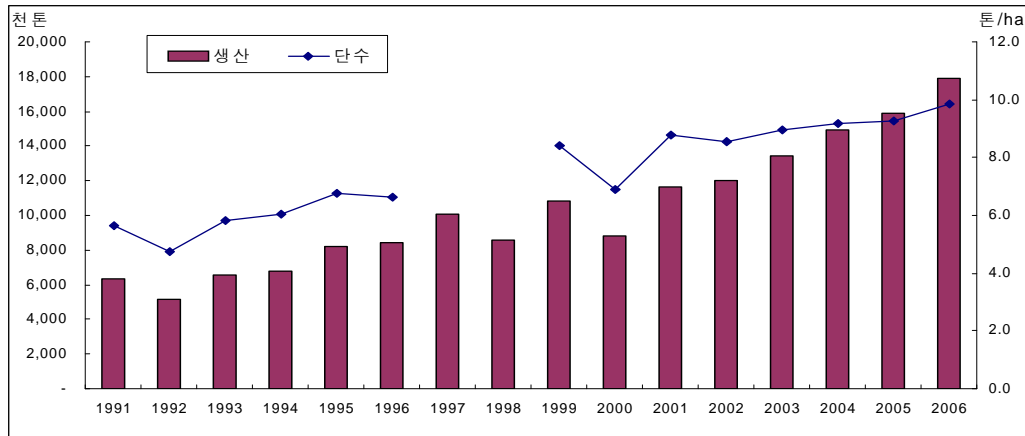
단위: 천 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배면적	1,272	1,324	1,405	1,506	1,627	1,717	1,814
생산량	8,783	11,607	11,990	13,454	14,958	15,919	17,898

자료: USDA/FAS. "Citrus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특히, 2006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2.4%나 증가하였다. 2006년에 생산량이 급증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2002년 이후 식재된 유목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하였다. 감귤류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때 심어진 과수가 5년이 지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던 일부 지역의 생산이 정상화되었다. 사천성 일부 지역과 중경지역은 지난해 여름 홍수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정상화되었다. 셋째, 날씨가 감귤 생산에 적합하였다. 중국 감귤의 주생산지는 광둥성, 강서성, 사천성, 호남성, 호북성 등인데 이들 지역의 날씨가 연중 좋아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4-1. 감귤의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자료: USDA/FAS. "Citrus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감귤은 복건성, 사천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광둥성 지역의 생산량이 많은데, 이들 5개 지역의 생산량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감귤 생산지역 가운데 광둥성과 강서성의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복건성, 사천성, 절강성 등의 지역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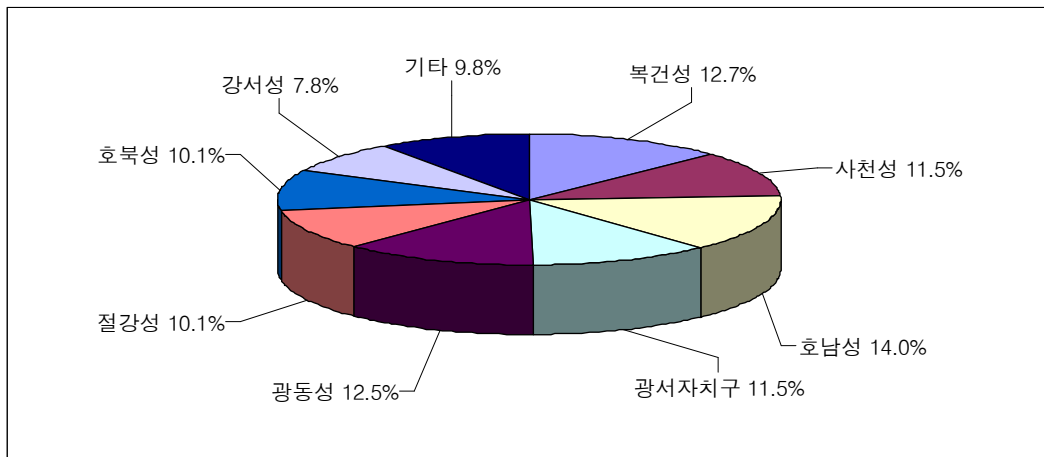
표 4-2. 감귤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톤

	전체	복건성	사천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광둥성
2000	8,783	1,306	1,328	1,259	880	811
2001	11,607	1,810	1,498	1,588	1,321	1,135
2002	11,990	1,932	1,662	1,489	1,373	1,234
2003	13,454	1,944	1,862	1,728	1,521	1,351
2004	14,958	2,068	1,988	1,879	1,720	1,591
2005	15,919	2,153	2,137	2,120	1,877	1,827
2006	17,898	2,267	2,058	2,508	2,055	2,244

자료: USDA/FAS. "Citrus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그림 4-2. 지역별 감귤류 생산 비중, 2006



자료: USDA/FAS. "Citrus Annual 2007," GAIN Report.

전통적인 감귤류 생산지역인 복건성의 감귤류 생산 비중은 2000년에 14.9%에서 2006년에 12.7%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전체 감귤류 생산에서 강서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3.2%에서 2006년에 7.8%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강서성이 새로운 감귤류 주산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귤 종류별로는 관피감귤인 만다린 계열의 감귤류 생산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탄제린과 오렌지 생산이 많다. 하지만 향후에는 오렌지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재배면적

표 4-3. 감귤류별 생산 현황

단위: 천톤

	전체	만다린	탄제린	오렌지	자몽(포멜로)
2001	11,607	4,082	4,668	1,352	1,382
2002	11,990	4,249	4,575	1,501	1,526
2003	13,454	4,843	4,997	1,809	1,642
2004	14,959	5,323	5,526	2,121	1,801
2005	15,920	5,543	5,764	2,547	1,867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資料年鑒」 각년도. 中國統計出版社

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다. 특히, 강서성의 오렌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는데, 성목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렌지 생산량이 2012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감귤류 재배면적의 증가는 광둥성이나 호남성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오렌지 품종은 Jincheng 품종과 네이블 오렌지(Navel orange)이다. Jincheng 품종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으로 중국 전체 오렌지 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하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다. 네이블 오렌지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블 오렌지는 12월에 출하된다. 그 외 Red River 오렌지와 Harmony 오렌지가 전체 오렌지 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중국의 감귤류는 적절한 과수원 관리, 농약과 비료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정부 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농가들은 해당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새로운 농사법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의 감귤류에 대한 투자도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일정한 품질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해 계약농가에 품질이 우수한 농약이나 비료를 공급하고 새로운 재배법을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감귤류의 품질은 상당히 높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포장시설, 가공시설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확 후에도 품질 유지가 용이하다.

2. 생산비 및 가격

중국의 생산비는 농약비, 비료비, 수리비, 임금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하였다. 중국통계국에 의하면, 2006년에 감귤류 생산비용이 전년에 비해 7.1% 증가하였다. 현재 강서성과 Gangzhou 지역의 네이블 오렌지 생산비

용은 kg당 \$0.14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오렌지 생산비용은 유목감귤원의 경우, ha당 생산비용은 3,150~4,800위안(ha당 \$381~581)이고 성목 감귤원의 경우에는 6,300~9,600 위안(ha당 \$762~1,162) 수준이다. kg당 오렌지 생산비용은 0.6~0.8위안(\$0.073~0.097) 수준이다. 밀감류인 만다린 오렌지의 경우에는 ha당 생산비가 4,500~9,000위안(ha당 \$544~\$1,089)으로 일반 오렌지 생산비보다 조금 높다.

중국산 감귤류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2007년 감귤류 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강성의 경우, 조생종 만다린의 농가출하가격은 kg당 \$0.16~0.19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하락한 수준이다. 네이블 오렌지의 구매가격은 강서성의 경우 kg당 \$0.38로 전년에 비해 15% 하락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추세는 예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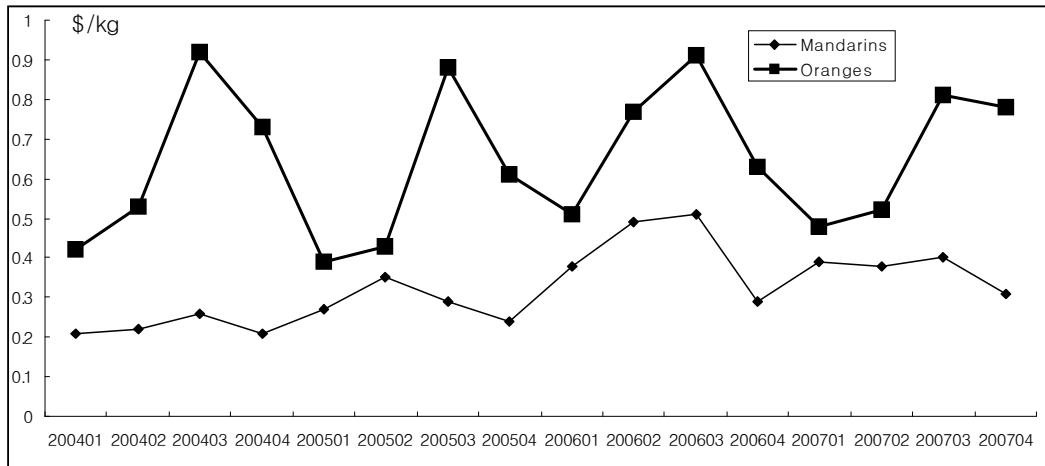
감귤류 가격은 계절별 가격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 중국산 출하가 거의 없는 3분기에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성출하기와 비교하면 3분기의 가격은 두 배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다린 감귤류도 계절별 가격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오렌지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가격 차이도 오렌지만큼 크지 않다. 만다린 감귤류 가격은 2006년도 2분기와 3분기 때 가장 높게 형성되었었다.

표 4-4. 감귤류 단위 면적당 생산비

	위안/ha	달러/ha
일반 오렌지		
- 유목감귤원	3,150~4,800	381~581
- 성목감귤원	6,300~9,600	762~1,162
만다린 오렌지	4,500~9,000	544~1,089

자료: USDA. GAIN Report CH3132.

그림 4-3. 감귤류 도매시장 가격 추이, 2004-2007



자료: USDA/FAS. 2007. GAIN Report CH7090.

3. 가공산업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감귤류의 약 5% 정도만이 가공용으로 이용된다.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오렌지 물량은 매우 적은 편이며, 현재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대부분 감귤로 주로 통조림으로 가공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중국내에서 2002년에 약 25만 톤 정도의 감귤 통조림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절강성은 감귤 통조림 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일부 가공되지만 그 비중은 아주 적다. 절강성에는 50여개의 통조림 가공공장에서 10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감귤 통조림을 생산한다.

2006년 감귤류 통조림 생산량은 40만 톤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의 경우에도 2006년과 비교할 때 생산량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일부 유럽지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2007년 10월 20일 중국산 감귤류 통조림

³ 통조림 1톤을 만드는데 약 1.2~1.5톤의 감귤이 소비된다.

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자 생산을 줄였다. 조사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중국산 감귤류 통조림은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은 2004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산 감귤류 통조림에 대하여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을 실시하고 있다. 쿼터량은 최초 연간 30,843톤 또는 유럽으로의 수출량의 절반으로 설정되었으나,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20,738톤으로 감소되었다. 중국 소비자들은 통조림보다는 신선 과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의 감귤류 통조림 산업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7년도 감귤류 통조림 수출은 2006년의 33만 톤에서 다소 감소한 30만 톤 수준이 될 것이며, 중국 내수는 5~10만 톤 수준에서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의 과실 주스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오렌지 주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2002년에 1만 톤 이하였던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frozen concentrated orange juice) 생산량은 배가 증가하여 2006년에 2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오렌지 주스의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제가격이 높았던 측면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2006년 국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가격은 최고치였던 2005년의 톤당 2,700달러보다 하락한 2,100~2,2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된 오렌지로 주스를 생산하면 생산비가 저렴하여 여전히 이윤이 남았다. 예를 들어, 중경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의 농가판매가격은 톤당 120달러 수준이었다. 농축 오렌지 주스 1톤을 생산하는 데 약 13톤의 오렌지가 필요하므로 순수 원료비는 1,560달러가 된다. 따라서 다른 생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000달러 이상이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USDA).

하지만 전체 오렌지 생산량 가운데 주스로 가공되는 양은 여전히 매우 적다. 오렌지 주스 생산량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오렌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중국산 오렌지를 섞는 방식으로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졌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오렌지 주산지역에 오렌지 재배면적을 늘리고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오렌지 주스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댐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삼협(三峽, Three Gorges)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렌지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주스 가공업체와 지방정부는 협력하여 농가가 오렌지 생산을 늘리도록 묘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중경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중경지역의 오렌지 재배면적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6,700ha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내 오렌지 주스 가공업체들은 최근 중경, 호북성, 복건성 등지에 대규모 주스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들 시설들은 현재 가공용 오렌지가 부족하여 부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유목이 성목이 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10년 이후에는 충분한 가공용 오렌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쯤이면 중국의 오렌지 주스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오렌지 가공 분야는 비농축 오렌지 주스이다. 중경 지역에 설립된 비농축 오렌지 주스 가공시설은 연간 처리물량이 5만 톤에 이른다. 하지만 가공용 오렌지의 부족 때문에 2006년에는 약 3,000톤 정도의 비농축 오렌지 주스만 생산되었다. 하지만 조만간 생산량이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경의 충현(忠縣, Zhongxian)에 설립된 오렌지 가공시설도 비농축 오렌지 생산설비로 연간 생산능력이 15만 톤에 이른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증가하는 오렌지 주스와 음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현지에 가공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 확보가 어려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4. 감귤류 및 주스 소비

소득이 증가하면서 신선과실의 소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신선과실의 대부분은 중·대형 도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다. 2006

년 도시지역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60kg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의 41kg보다 46.3%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농촌지역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kg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감귤은 연간 1,500만 톤이 소비되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11kg 정도이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감귤의 대부분이 중·저급품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음료 및 과일 통조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귤도 가공품 중심의 2차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표 4-5. 감귤류 연간 1인당 소비량, 2003-2006

단위: kg

	농촌	도시
2003	5.97	14.94
2004	6.15	15.33
2005	6.32	15.70
2006	6.46	15.86

주: 감귤류에는 관피감귤, 레몬, 유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資料年鑒」 각년도. 中國統計出版社.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점차 고품질 과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는 고품질 과실의 특징은 당도, 외형 및 색깔, 크기 등이다. 특히, 색이 선명하고 껍질에 광택이 있으며 당도가 높은 과실이 고급 과실로 인식된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과실의 외형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품질에 저렴한 과실이 있더라도 외형이 좋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소비자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외형이 좋아야 한다.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대형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및 편리성 때문에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노점상에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는 데 익숙해진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 소비자

들은 중국산 오렌지와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 오렌지를 선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감귤류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일이다. 이것은 중국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아직까지 저장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귤류는 보통 2월까지만 저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 감귤류는 중국산 감귤류가 유통되지 않는 3월부터 10월까지 인기가 높다. 수입 과실류는 중산층 이상이 소비하거나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된다.

주스 소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스 음료의 소비 증가 속도 보다는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Chinese Central Television)이 북경, 상해, 광주(廣州, Guangzhou), 무한(武漢, Wuhan), 청도(青島, Qingdao), 성도(成都, Chengdu) 등 6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도시가구 가운데 100% 주스를 마시는 비중이 3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해나 북경과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의 소비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상해의 경우 주스 소비량이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스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주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성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도시 소비자의 1인당 주스 소비량은 아직까지 1리터도 되지 않는다. 주스보다는 생과실이 몸에 더 좋다는 생각도 주스 소비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차(茶)가 중심인 중국 사회에서 주스(juice)는 전통적인 음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에 익숙한 문화 때문에 주스도 차와 같은 형태로 마시기도 한다. 아침 식사에 주스를 마시는 일반적인 소비행태와 달리 중국 소비자들의 54%는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스 음료(juice drinks)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700만 톤의 주스 음료수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가 증가한 물량이다. 전체 주스 및 주스음료수 시장의 80%는 주스 음료수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오렌지 주스의 상당부분은 수입농축액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음료수는 이를 재구성하여 생산된다. 오렌지 주스는 중국 내에서 점유율

이 가장 높은 주스에 해당되며, 소비자의 58%가 오렌지 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중국 소비자가 영양이나 생산물에 익숙해지면서 음료수에 더 많은 과실이 포함된 고품질 음료수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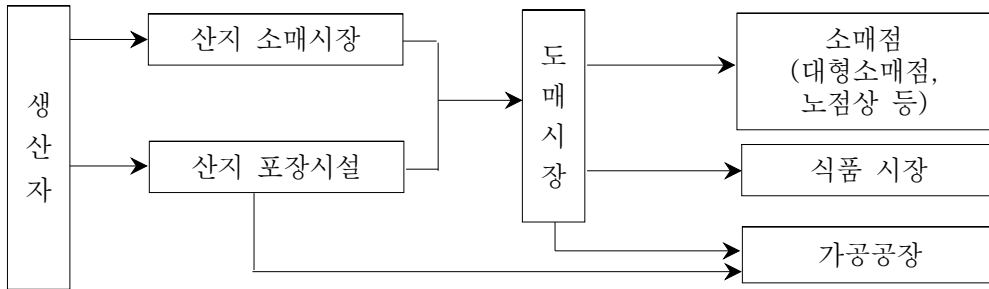
과거 중국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통조림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내 과일 통조림 소비는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조림 가공업체들은 중국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공업체가 포장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이동과 뚜껑을 따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포장기술이 잘 활용된다면 중국의 과일 통조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감귤류 유통

감귤류는 전통적으로 농촌 재래시장, 수매시장, 산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된다. 농촌 재래시장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시장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류가 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다. 이 시장에서 수집상들이 감귤류를 수집하여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과거 정부 소유의 시장형태였던 수매시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수매시장은 초급단계 시장으로써 1급시장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수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포장공장과 가공공장의 확장으로 수매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중국산 및 수입산 감귤류의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경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신발지(新发地, Xinfadi) 시장은 2006년에 약 50만 톤의 중국산 및 수입산 감귤류를 취급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큰 신선농산물 도매시장인 강남(江南, Jiangnan) 시장은 5백만 톤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였고 금액으로는 20억 달러에 이른다. Jiangnan 시장은 수입 과일의 가장 큰 유통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림 4-4. 감귤류 유통 경로



또한,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소매상들의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중국 내에서 확대되면서 이들 대형 소매점들은 고품질 및 대량의 상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대형 소매점들은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가들과 우선적으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형 소매점들은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유통시스템을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켰다. 중국 내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이들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 채널을 찾기 위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현대화된 구매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생산자들은 고품질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통 시스템이 많이 현대화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냉장유통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냉장저장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역부터 수송 과정 및 저장창고에 이르기까지 온도 변화가 심하여 상품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유통업체는 감귤류의 취급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중간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 외형 손실, 맛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냉장 유통시스템 문제로 중국산 감귤류의 유통기간이 짧고 수입 감귤류도 유통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브랜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에서 상품을 성공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미국의 Sunkist이지만,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브랜드는 없다.

6. 수출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02년에 1.8%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2.9%까지 상승하였다. 감귤류 가운데 수출량이 많은 것은 만다린 오렌지로 전체 감귤류 수출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다. 만다린 오렌지의 주요 수출지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이다. 오렌지는 홍콩,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다. 수출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만다린과 오렌지 모두 수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귤류 수출에서 최근에 나타난 특이한 점은 만다린 감귤류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오렌지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다린의 수출 비중은 2002년에 87%까지 상승하였다가 2006년에 77%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오렌지 수출 물량은 2002년에 전체의 7%에 불과하였지만 2006년에는 11%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장성이 떨어져 유통기간이 짧은 만다린 오렌지의 생산을 억제하고 저장성이 좋아 장기간 유통이 가능한 오렌지의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감귤류 수출의 변화는 중국 정부 정책의 결과가 시장에도 나타난 결과이다. 아직까지 오렌지의 유목이 많아 생산 증가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오렌지의 생산비중 증가와 함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오렌지 수입은 2005년에 63,795톤에서 2006년에 38,873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수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흉작 때문이었다. 2007년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수입량이 6

만 톤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5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50,947톤이었으나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8,164톤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오렌지 수입이 감소했던 이유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냉해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2006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흉작으로 국제 오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하였다. 올해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증가하였다.

중국이 주로 신선 오렌지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2005년에 23톤을 중국에 수출하였지만 2006년에는 1,317톤을 수출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만산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만의 수출 증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오렌지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수입 오렌지에 대해 점차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렌지 성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시기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와도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오렌지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들 국가의 오렌지는 중국내 성출하기가 끝난 3월부터 10월 사이

표 4-6. 중국 감귤류 수출 현황, 2002-2006

단위: 천톤

	만다린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기타	합계
2002	189.7	6.9	8.8	0.1	11.4	216.8
2003	244.8	20.6	14.2	0.0	12.4	292.0
2004	298.8	34.4	14.1	0.3	13.9	361.4
2005	370.8	55.3	21.7	0.1	17.7	465.6
2006	335.8	49.6	38.9	0.1	10.7	435.1

주: 만다린류는 만다린, 탄제린, 클레멘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몽에는 포멜로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www.globaltradestatistics.com).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중 FTA 대비 중국 감귤산업 현황 조사”(2007)에서 재인용.

에 주로 수입된다. 따라서 비성수기에는 이들 두 국가에서 수입된 오렌지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렌지의 가격이 캘리포니아 오렌지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렌지가 유리한 국면이다.

미국산 오렌지는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공급되고, 호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여름과 가을에 주로 공급된다. 주로 수입되는 오렌지 품종은 네이블 오렌지와 발렌시아 오렌지이다. 하지만 씨도 없고 껍질도 벗기기 쉽다는 특성 때문에 네이블 오렌지가 더 많이 선호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과실의 대부분은 廣州 江南果菜都賣市場(Guangzhou Jiangnan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을 경유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85~90%의 과실이 이 곳 시장을 거쳐 중국 전역에 유통된다.

중국 과실 수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수입경로가 아닌 비공식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로를 회색채널(grey channels)이라 하는데 이 회색채널을 통한 거래량은 매우 크에도 국가 정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선 오렌지의 경우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량을 포함하면 실제 수입량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입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표 4-7. 중국의 국별 신선오렌지 수입 현황, 2005-2006

단위: 톤

	2005	2006
미 국	50,947	28,164
남아프리카공화국	3,446	5,014
대 만	23	1,317
아르헨티나	698	1,080
뉴 질 랜드	8,288	1,038
우 루 과 이	122	999
태 국	266	834
기 타	5	427
전 체	63,795	38,873

자료: USDA/FAS. 2007. GAIN Report CH7090.

◆ 회색 유통 채널 (grey channels)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지 않고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회색 채널을 통한 수출은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역량은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과실류의 95%가 회색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을 만큼 회색채널을 통한 교역량이 많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검역 문제 때문에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금지하여 왔다. 하지만 미-중 농업협력 협약(the Agreement of U.S.-China Agricultural Cooperation)⁴이 발효되면서 2000년 4월에 미국산 오렌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되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국산 오렌지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미국산 사과 또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5년에 1,325만 달러, 2006년에 894만 달러의 사과를 회색채널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러한 회색채널을 통한 교역량은 중국 정부의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회색 채널을 통한 중국으로의 재수출은 문서화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회색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당 물량이 홍콩 근처에 있는 광둥성의 남해(南海, Nanhai) 여수(丽水, Lishui) 도매시장⁵을 통해 이루어진다. 홍콩에서 들어온 물건은 중국 전역으로부터 온 소매상 혹은 도매상들에게 인도된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회색 채널을 통한 교역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북부지역의 항구들이 항만시설을 확대하면서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연안의 항구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상하이가 주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회색 채널을 통한 거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USDA/FAS).

⁴ 1999년 10월에 중국이 미국산 일부 농산물에 대해 유지하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협정이다. 이 협정문을 통해 미국은 오렌지, 육류, 가금육, 밀, 기타 곡물 등을 회색 채널이 아닌 직접 채널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⁵ Lishui 시장은 최근까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과실 도매시장이었다. Lishui 시장은 1998년 6월에 설립되어 joint-venture 형태로 운영되었다. 2000년에 Lishui 시장은 10,000컨테이너 이상의 외국 과실을 수입하였으며 액수로는 3억 달러(25억 위안)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저우의 Jiangnan Produce Wholesale Market이 가장 크며 중국내에서 과실 처리 물량이 가장 많다. 2006년에 Jiangnan market에서 거래된 물량은 5백만 톤에 금액으로는 20억 달러에 이른다.

탄저린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품목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등이다. 2006년 전체 탄저린 수출량은 370,578톤으로 2005년의 337,863톤보다 9.7% 증가하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증가하였다.

2007년 탄저린(tangerines) 수입은 전년도보다 26% 감소한 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저린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호주산 탄저린의 품질이 예전에 비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는 2005년에 중국으로 탄저린을 처음 수출한 이후 2006년에는 수출량이 세 배로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뉴질랜드산 탄저린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탄저린은 비수기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소비되는데, 9월의 중추절에 소비량이 가장 많다.

냉동농축 오렌지 주스의 최대 수출국은 브라질과 이스라엘이다. 2006년의 경우 브라질은 전체 농축오렌지 수입의 62.7%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량과 합하면 전체의 94.4%에 이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축오렌지 주스는 이 두 나라로부터 수입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외에 네델란드와 이탈리아가 소량 중국에 농축 오렌지 주스를 수출한다.

표 4-8. 중국의 국별 신선 탄저린 수출 현황, 2005-2006

단위: 톤

	2005	2006
베트남	100,486	74,232
말레이시아	76,925	72,652
인도네시아	40,777	59,300
러시아	36,980	50,637
필리핀	27,375	35,616
홍콩	20,465	31,902
캐나다	18,866	21,774
기타	15,965	24,465
전체	337,863	370,578

자료: USDA/FAS. 2007. GAIN Report CH7090.

표 4-9. 중국의 국별 농축오렌지 주스 수입 현황, 2005-2006

단위: 톤

	2005	2006
브라질	43,918	35,737
이스라엘	18,049	18,093
네델란드	1,412	1,235
이탈리아	277	940
기 타	997	987
전 체	64,653	56,992

자료: USDA/FAS. 2007. GAIN Report CH7090.

냉동농축 오렌지 주스의 수입량은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 64,653톤이 수입되었는데 2006년에는 56,992톤으로 감소하였고, 2007년도에는 5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냉동농축 오렌지 주스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도 냉동농축 오렌지 주스의 국제가격은 톤당 \$2,100~2,200 수준인데 반해, 중국 내 생산가격은 \$1,9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0. 중국의 국별 신선오렌지 수출 현황, 2005-2006

단위: 톤

	2005	2006
홍 콩	17,194	33,855
베트남	17,099	14,420
말레이시아	5,962	14,257
러시아	4,573	8,009
캐나다	791	3,480
싱가포르	1,867	1,822
마카오	1,808	1,700
기 타	1,199	1,069
합 계	50,855	78,822

자료: USDA/FAS. 2007. GAIN Report CH7090.

2006년에 신선 오렌지 수출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885톤이었던 신선 오렌지 수출은 2006년에 78,822톤으로 약 55% 증가하였다. 중국의 신선 오렌지는 주로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지역과 러시아, 캐나다 등으로 수출된다. 2007년도 감귤류 생산은 풍작이었지만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수출이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2007년 11월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검역규정 때문이다. 새로운 검역규정에 따르면, 수출되는 모든 과실은 지정된 과수원에서 수확된 과실을 지정된 포장시설에서 포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규모 포장업체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정부 정책

중국 정부는 사과와 함께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11개 대상 품목에 감귤을 포함시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에서 우수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세 곳으로 (1) 장강 상중류 지역은 최대의 오렌지 가공기지(10만 ha), (2) 강서성의 남쪽, 후남성의 남쪽, 계림의 북쪽지역은 네이블 오렌지 생산기지(12만 ha), (3) 절강성의 남쪽, 복건성의 서쪽, 광둥성의 서쪽지역은 관피감귤 수출기지(5.3ha)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보면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중점 육성 품목이 지역별 주생산 품목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수농산물 지역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정책이 완료되는 2012년쯤에는 고품질 감귤류의 생산 비중이 현재의 35%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ha당 10.5톤에서 ha당 22.5톤까지 증가한다. 또한, 조생종 및 만생종의 비중이 20%에서 35%까지 증가하며 신선과실의 유통기간도 4개월에서 8

개월로 늘어난다.

중국 감귤류 생산의 특징은 저장성이 높은 오렌지보다 저장성이 떨어지는 관피(寬皮) 감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에서 오렌지의 비중이 63%인 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감귤류는 관피 감귤 계열인 만다린 계열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관피 감귤은 껍질이 얇아 손실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떨어져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감귤 품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관피 감귤의 비중을 줄이고 오렌지의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조생종(15~20%)과 만생종(5~10%)의 품종 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생종(23%), 중생종(50%), 만생종(27%)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감귤류의 시장 유통 기간을 늘리고 출하기간도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어 시장 여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5. 중국의 감귤 특화지역



◆ 중경(重慶) 충현(忠縣, Zhongxian) 감귤 기지

1997년 충현은 세계 500대 기업인 미국 Seagram회사와 합작하여 설립된 오렌지 생산 및 가공기지이다. 삼협지역 최대 농업자본유치 프로젝트인 Seagram “삼협감귤산업화”으로 9.85억 위안이 투자되었다. Seagram측에서 1,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한 Seagram 감귤기술센터는 이미 운용되고 있는데, 이 센터의 연간 묘목육성능력은 250만 그루로 세계 최대이다.

동 프로젝트의 다른 한 중요 조성부분인 《감귤건설가공공장 1기》도 현재 운영 중인데, 이로써 충현은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제3번째 대형 신선냉장 오렌지주스 가공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 톤에 이른다. 2009년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료되면 오렌지 과수원은 3,025만㎡로 확대되고 ㎡당 생산량은 최고 150kg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감귤류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취급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감귤 재배 및 가공업체는 2,000개 정도이다. 그 가운데 재배면적이 1만 ha 이상인 생산기지 및 기업은 200개 정도이다.

◆ 협서(陝西) 성고현(城固县) 무공해 감귤생산기지

협서 성고현은 원래의 양유(糧油) 생산 위주에서 감귤 등 과실품목 생산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우세주도산업을 강화하여 감귤의 생산규모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농업부 등 기관으로부터 “중국 유명, 우수, 특종 상품 감귤의 고향”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성고현은 감귤산업을 둘러싼 발전계획을 세워 향, 진 생산기지 9개를 건립하였고 진형(秦嶺) 남쪽에 25km에 달하는 감귤산업지역을 조성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중경(重慶) 충현(忠縣) 오렌지 기지이다. 충현 감귤기지는 2002년에 44만무(약 3만 ha)의 오렌지 농장을 조성하였다. 44만무의 농장에 오렌지 묘목 250만 그루가 재배되고 있으며, 충현 기지의 오렌지 묘목 생산능력은 세계 최대이다. 충현 기지의 장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0년 경에 충현 감귤기지는 연간 오렌지 1백만 톤을 생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물량은 아시아 최대이다.

◆ 호북(湖北) 이창(宜昌) 감귤생산기지

이창시 이링구(夷陵区)는 전국에서 유명한 “밀귤(蜜桔)의 고향”이며 이링구(원 이창현)에만 20여 개 감귤공장이 분포되어 있다. 감귤은 이링구의 3대 농업 주도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감귤 재배면적은 40백만㎡로 연간 생산량은 약 30만 톤에 달하여 전체 삼협지역에서 생산량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중국 정부의 농업지원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정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성(省) 정부나 그 아래 하위 정부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경(重慶, Chongqing)은 조금 예외이다. 이 지역에는 댐 건설로 인해 삼협지역(三峽, Three Gorges)에서 이주한 농민들이 50만 명 이상으로 많은데 중앙정부는 이들이 오렌지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면서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성 정부는 많은 오렌지 과원을 만들어 이들 이주민들에게 재분배해주고 있다. 정부는 오렌지 농장을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의 농장을 갱신할 경우 ha당 \$3,000 ~ 5,812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경시 정부는 농민들이 오렌지 나무를 심도록 유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현(忠縣, Zhongxian County)의 경우 5위안의 유목을 구입하는 데 4위안을 보조해주고 있다. 중경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3억 위안(4,050만 달러)을 오렌지 생산기지 구축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특성화 농협에 관한 법률(Law on Specialized Farmer Cooperatives)”을 통과시켜 2007년 7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특성화 농협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특성화 농협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도 우대받게 된다.

수출용 과실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검역당국은 모든 수출용 과실은 검역당국에 등록된 과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포장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으로 중국의 감귤류 수출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로 수출되는 감귤류는 등록되지 않은

포장업체나 등록되지 않은 수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출용 과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농약 사용, 곤충의 존재 여부 등을 검역당국이 검사하게 된다. 많은 소규모 포장시설들은 단기적으로 개정된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수출은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지정된 과원과 지정된 포장시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8. 중국산 감귤류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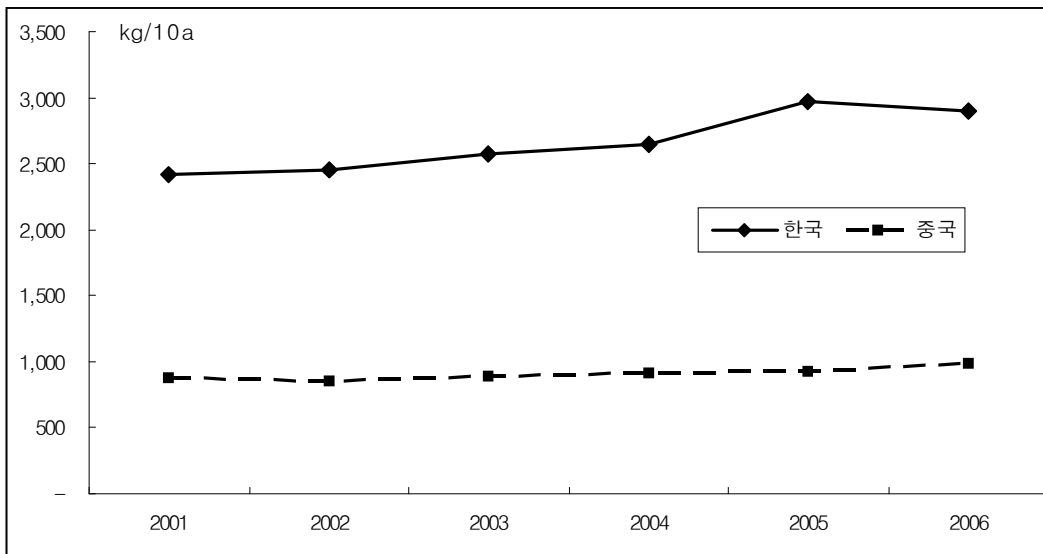
중국의 감귤류의 중심축이 만다린 중심의 관피감귤에서 오렌지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감귤 관련 정책의 흐름을 보면, 첫째 관피감귤보다는 오렌지 생산을 늘리고, 둘째 관피감귤 내에서도 조생종보다는 중생종 및 만생종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전체 감귤 생산에서 만다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35.2%에서 2005년에 34.8%로 줄어든 반면, 오렌지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6%에서 16.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출 측면을 보면 오렌지 생산 증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감귤류 수출 가운데 77% 이상이 만다린이었고 오렌지의 비중은 11%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만다린 수출 물량은 30만 톤 수준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우세농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도 개선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도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산 감귤류와 국내 감귤의 생산성 차이를 보면,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감귤의 10a당 생산량은 2,900kg을 초과하였으나, 중국산 감귤류는 1,000kg 미만에 머물러있다. 단수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만다린 외

에도 오렌지 및 기타 감귤류를 포함한 단수이다. 따라서 만다린만 비교한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단수보다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한국과 중국 감귤류의 단수 비교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산 감귤은 국산에 비해 당도와 산함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실의 외형이나 육질도 국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은 국산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감귤류 품질 제고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차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1. 국산 감귤과 중국산 감귤의 품질 비교

구분	과중 (g)	당도 (Bx)	산함량 (%)	외관		육질	종합
				과형	색깔		
한국산	100	10~12	1.1	6.6	6.7	6.6	상
중국산	150	9~10	0.8	5.8	4.8	5.6	중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70)에서 재인용.

2005년 한국의 감귤류 생산비는 10a당 146만원인데 반해, 중국의 생산비는 26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비와 토지용역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노동과 자가노동을 포함한 노동비, 토지용역비는 2배로 상승하고 기타 비용은 50%만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여 생산비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 경우 중국의 생산비는 44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비에 비하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표 4-12. 한국과 중국의 감귤 생산비 비교

단위: 원/10a

비목별			한국	중국	
				2005년	시나리오 I ³⁾
경 영 비	중 간 재 비	종묘비	4,286	568	852
		비료비	77,152	72,112	108,168
		농약비	155,501	46,422	69,633
		농구비	60,301	6,526	9,789
		수리(水利)비	7,208	590	885
		기타중간재비 ¹⁾	86,079	15,112	22,668
	토지용역비	382,742	11,789	23,578	
	고용노동비	185,251	31,056	62,112	
	축력비	0	0	0	
	경영비계(A)			958,520	184,175
자가노력비(B) ²⁾			501,431	72,464	144,928
합계(C=A+B)			1,459,951	256,639	442,613
비율(한국/중국)				5.7	3.3

주: 1) 영농광열비, 재료비, 수선비, 위탁관리비의 합계임.

2) 중국은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체 노력비 92,152원의 30%를 고용노력비, 70%를 자가노력비로 산정함.

3) 임금과 토지용역비는 2배 상승, 나머지 항목들은 5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농촌진흥청. 「주요국별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 2005.

중국산 감귤이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에 수입이 될 지 계산해보았다. 현재 수입 감귤에 부과되는 관세는 144%이다. 이 관세가 중국산 감귤에 적용될 경우, 여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산 감귤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현행 관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면 중국산 감귤이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TA를 통해 관세가 추가 감축되는 경우에는 국산 감귤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시나리오별 중국산 감귤의 수입가격

단위: 원/kg

구분	국내산 가격	중국산 감귤의 수입가격		
		현행관세 유지	50% 철폐	완전 철폐
감귤 가격	1,182	976	568	400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68)을 바탕으로 재구성.

감귤은 국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쉽게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과실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한 감귤의 수입을 억제하도록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렌지는 감귤과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의 양허기간을 두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 국내 감귤보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생산량이 아주 적은 오렌지 시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식물 검역상 만다린과 오렌지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수입 금지 요청을 하더라도 해충위험평가(PRA)가 빨라도 5년 정도가 소요되고 길면 10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감귤류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5 장

배 산업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배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배 생산국이다. 생산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사과나 감귤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져 아직까지 우수농산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우수농산물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배의 재배면적은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1996년 이후에는 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면적의 둔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재배면적이 1백만 ha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도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약간 감소한 106만 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사과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의 경우에는 신선 사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농축주스의 수요도 급증하여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배보다는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9백만 톤을 초과하였고 2004년에는 1천만 톤을 초과하였다. 2007년 생산량은 1,258만 톤으로 2006년에 비해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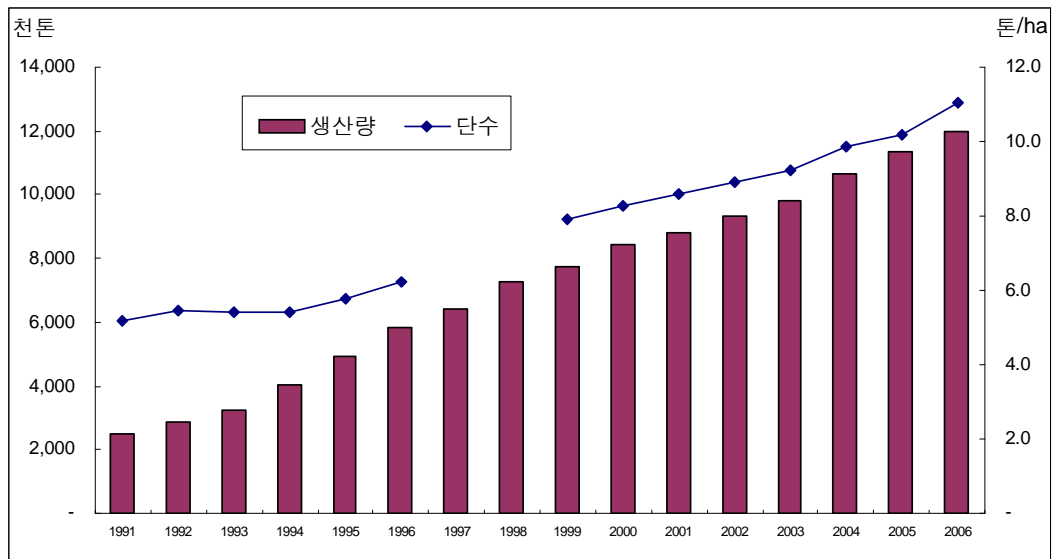
표 5-1.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 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배면적	1,015	1,026	1,042	1,062	1,079	1,112	1,087
생산량	8,412	8,796	9,309	9,798	10,642	11,324	11,98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그림 5-1. 배 생산량과 단수, 1991-200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7.

배의 단수는 1990년대 ha당 5톤을 유지하다가 1996년에 6톤을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10톤을 초과하였다. 배의 생산량은 199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1.0%씩 증가한 반면, 면적은 5.6%씩 증가하여 단수는 연평균 5.2%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과 단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배는 전국에 걸쳐 생산되고 있지만, 하북성의 생산량이 제일 많다. 2005년의 경우, 하북성과 산둥성의 생산량을 합하면 전국 생산량의 38%에 이른다. 특히, 하북성의 진황도·보정 지구는 하북성 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생산지이다. 산둥성에서는 양신, 관현 등의 북서지구와 연태·청도 지구가 중심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물량이 산둥성 전체의 2/3를 차지한다(농협중앙회).

배 재배의 특징을 보면, 최근에는 산둥성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기존 주산지인 하북성을 비롯하여 섬서성, 신장성 등의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주산지가 조금씩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품종의 도입과 봉지 씌우기 농법의 도입으로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의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배 품종은 압리(鴨梨, Ya Pear)와 설화리(雪花梨, Snow Flake Pear)이며, 이 두 품종의 생산량이

표 5-2. 배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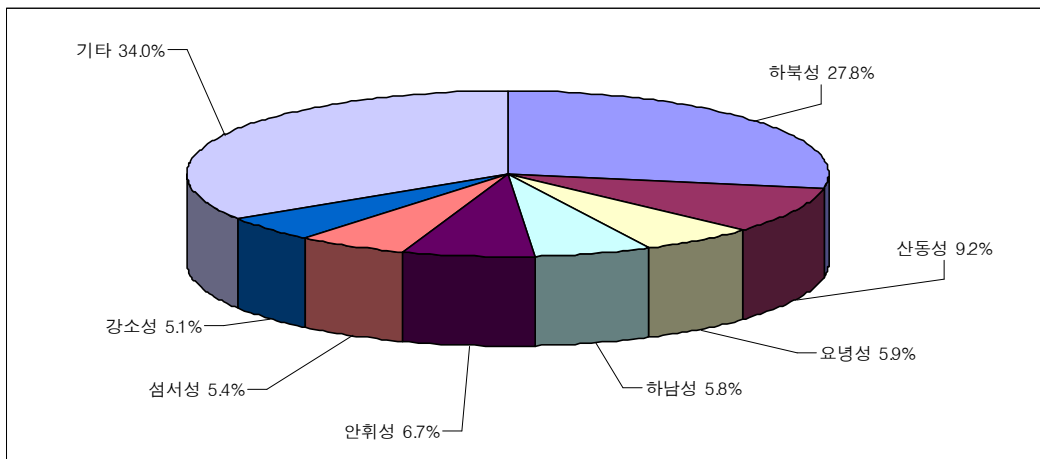
	전체	하북성	산둥성	요녕성	사천성	하남성
2000	8,412	2,552	911	455	344	333
2001	8,796	2,446	961	510	395	396
2002	9,309	2,663	830	413	470	480
2003	9,798	2,821	983	516	548	433
2004	10,642	3,132	1,001	606	620	545
2005	11,324	3,246	1,061	690	685	655
2006	11,986	3,335	1,013	705	746	969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압리와 설화리는 모두 백리계(白梨系)에 속한 품종으로 황백색의 계란형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2004년에 생산된 배 가운데 압리가 22%, 설리가 17%를 차지하였다. 하북성에서 생산되는 배의 55%가 설화리이다. 신장성에서는 향리(香梨, Fragrant Pear)의 생산 비중이 높다. 향리는 압리나 설리에 비해 가격이 높은 품종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 품종이 압리와 설리에서 신품종 조생종 품종인 Golden, Huangguan, Nanguo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⁶

산동성의 경우 과거에는 중국 품종의 배가 재배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한국계 농장들이 한국 배 품종을 가지고 산동성에 진출하면서 한국 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산동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한국 배는 신고배가 가장 많고, 그밖에 원황배, 황금배 등도 일부 재배되고 있다.

그림 5-2. 지역별 배 생산 비중, 200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7.

⁶ 배는 크게 백리계(白梨系), 추자리계(秋子梨系), 사리계(沙梨系), 양리계(洋梨系) 등으로 나뉜다.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鴨梨와 雪花梨는 모두 백리계에 속한 품종이다. 추자리계는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사리계는 양자강 이남에서 주로 재배된다.

산동성에서 생산되는 한국 배의 물량은 아직까지 유목면적이 많아 약 5,000톤 수준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다. 하지만 유목이 성목이 되는 향후 5년 이후에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 재배면적이 500만 평(1,700ha)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 면적에서 모두 배가 생산된다면 생산물량은 현재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10a당 성목면적에서 2.5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면, 500만 평이면 생산량이 4만 2,000톤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배 생산량이 45만 톤 정도이므로 이 물량은 10% 수준에 달하는 물량이다. 따라서 이 물량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농가의 배 재배기술은 우리나라 농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신품종을 보급하고 선진 재배기술 등을 도입하면서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배에 봉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농가들이 봉지 재배를 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 지역 배 농가의 재배기술은 한국 배 품종을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된 재배기술로 인해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성(省)정부 등의 정부 차원에서 과수연구소, 기술교육센터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배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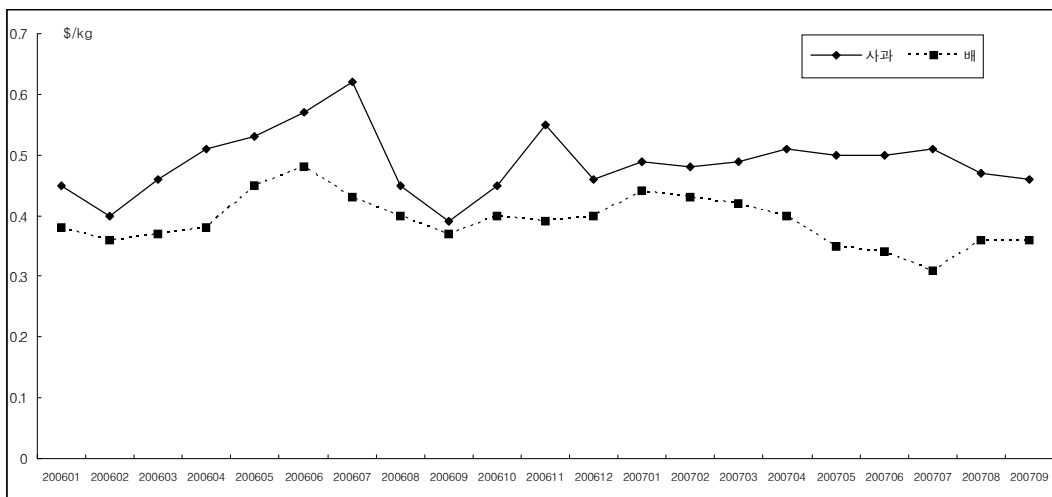
2. 생산비 및 가격

2006년 배의 생산비는 전년에 비해 11.7% 상승하였다. 사과와 배의 생산비도 배와 비슷한 수준인 12.5% 상승하였지만, 농가수취가격은 사과가 배보다 높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과 가격이 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사과는 kg당 \$0.49였고 배는 \$0.39였다. 즉, 사과의 수출가격이 kg당 \$0.10가 높았다.

배와 사과의 가격 변화를 보면, 두 과실의 가격이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두 과실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동시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에서 배와 사과가 매우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도 사과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는 대체재인 배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자 대체재인 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배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결국 사과의 가격 상승으로 배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과와 배는 대체관계가 높은 과실로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에 민감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사과의 구매를 줄이고 배의 구매를 늘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5-3. 사과와 배의 수출가격 비교, 2006-2007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7.

3. 가공산업

주스나 과일 음료수 등으로 가공되는 배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의 배 생산지역인 하북성에 두 개의 배 주스 가공시설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가운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은 가공용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과수산업 전체로 볼 때, 배 가공산업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4. 유통

배가 산지에서 유통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산지의 집무시장을 통해 소비자 도매시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확기에 대도시의 유통상인이 생산지의 집무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하여 소매시장에 유통시키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생산자에서 산지 집무시장, 도매시장, 소비자 소매시장,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유통 경로이다.

대도시 지역의 대형 소매점들은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대량으로 유통으로 가능한 산지 수집상이나 생산자 가운데서도 생산량이 대량인 경우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스 가공업체 등은 산지 근처에 공장을 설립하여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중국은 수확 후 유통 관리 기술 수준이 낮다. 여기에는 수확 후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냉장 저장 혹은 유통시스템이 포함된다. 중국은 아직까지 두 가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배를 상온에 저장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저온저장 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저온저장고의 경

우에는 주로 도매업자가 이요하며, 수출업자는 자체적인 저온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통시설 정비나 확충은 중앙 혹은 성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수출입 현황

중국 배 수출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 30만 톤을 넘어섰던 배의 수출은 2006년에는 37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전통적인 배 수출 시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였지만, 최근에는 9월 이전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3. 중국의 국별 배 수출,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인도네시아	36,159	59,206	73,326	71,988	71,765
러시아	29,536	36,500	31,150	42,866	47,432
말레이시아	51,456	42,715	37,406	47,997	43,334
홍콩	26,569	34,069	42,470	46,171	37,627
베트남	34,675	28,970	36,123	51,002	36,756
태국	2,230	19,642	19,683	27,985	33,009
싱가포르	24,373	15,815	12,429	12,739	15,118
캐나다	10,132	8,735	n.a.	8,509	13,176
미국	7,141	3,730	102	0	9,206
기타	49,866	53,787	65,384	59,076	67,875
합계	272,137	303,169	318,073	368,333	375,298

주: marketing year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 배의 수출지역이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비중이 높다. 이들 4개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주요 배 수출 대상국가가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었으나 WTO 가입 이후에는 캐나다와 미국으로도 배가 일부 수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등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으로의 수출도 일부 있지만, 캐나다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동양배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아 수출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종별로는 압리(鴨梨, Ya Pear)와 설화리(雪花梨, Snow Flake Pear)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05년 중국 배 수출 가운데 압리와 설화리의 수출액은 4,200만 달러로 전체 배 수출의 34%를 차지하였다. 향리(香梨, Fragrant Pear)는 신강지역에서의 수출이 많다. 중국 전체의 향리 수출의 약 60% 정도를 신강 지역이 차지하였다.

표 5-4. 품종별 배 수출 동향, 2000-2005

단위: 백만 달러,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압리, 설리 (08082012)	금액	19	22	31	39	36	42
	물량	82	104	140	159	155	171
향리 (08082013)	금액	2	3	4	5	14	16
	물량	9	12	11	13	17	18
기타(신선) (08082019)	금액	15	16	25	36	41	65
	물량	56	68	92	126	146	179
모과류 (08082020)	금액	-	-	-	-	-	-
	물량	-	-	-	-	-	-
합 계	금액	36	41	60	80	91	123
	물량	147	184	243	298	318	36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최근 들어 배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매우 낮은 편이다. 2005년에 배 수출량은 36만 8,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5%에 해당된다. 하지만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표 5-5. 배 생산량 중 수출 점유율, 1999-2004

단위: %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점유율	1.6	1.8	2.2	2.7	3.1	3.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지역별로는 하북성의 수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둥성, 섬서성 순이다. 특히, 섬서성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매우 빠르다. 2001년에 1천 달러 수준이었던 섬서성의 수출액은 2004년에 1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5년의 경우 하북성의 수출액은 2만 7,000달러, 산둥성의 수출액은 1만 9,000달러였다. 섬서성은 1만 달러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에는 흑룡강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배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수출은 검역대상인 질병(흑반병 黑斑病)이 2003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부터 중단되었다. 과거 캐나다는 중국산 압리와 향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는데 이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었다. 미국에는 압리가 수출되었는데 2003년 12월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2006년 2월에 하북성과 산둥성의 지정된 과원에서 생산된 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캐나다로의 수출도 재개되었다. 향리는 2006년 10월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되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배는 압리와 향리인데, 중국산 배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황금배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방역법상 검역 절차에 의해 중국으로 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은 중국으로 배를 수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배 수입물량은 1천 톤도 안 될 만큼 매우 적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배의 대부분은 뉴질랜드 산 배이다.

산동성에는 한국인들이 조성한 배 농장이 많이 있는데, 2006년 현재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배 농장 수는 40여 개이며, 면적은 5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협중앙회). 그에 따라 생산량도 5,000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동성에 재배되는 품종의 60% 정도는 신고배이며, 이외에 황금, 원황 등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산동성에서 생산된 한국계 배는 국내의 수출 시장인 인도네시아나 미국 등에서 국내 배와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정부 정책

배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떨어져 2003년 발표된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11개 농산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이 조만간 배에도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배 수출업체도 2007년 11월 1일에 발효되는 새로운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과실은 검역소에 등록된 과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포장도 등록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이미 수입국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여 준수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로 수출되는 과실은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소규모 비등록업체에서 포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로 수출되는 과실은 단기간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년간은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과실 수출업체와 과실 가공업체는 과실 혹은 주스를 수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각각 5%, 13%에 해당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배 수출업체나 가공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 중국내 한국배 생산 실태⁷

1997년 중국 산둥성 지역에 한국 최초로 문경(聞京)농산이 설립되어 한국 품종의 배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배가 중국에 진출하기 이전에는 일본산 배의 중국시장 판매가격이 매우 높아 약 70위안/kg이었다. 이러한 높은 가격 때문에 초기 한국 배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나 업체에 의해 대규모로 중국에 진출된 것으로 보인다.

문경농산은 삼성협력사가 투자한 곳으로 한국인 경영 전체 배 농장 규모의 20%인 100만평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래양(萊陽) 지역의 모 농산은 한국의 모 건설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최초 진출한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이 운영하는 배 농장 규모는 산둥성 지역 5개시(市)에 총 40여개 농장이 있으며 면적으로는 약 500만 평에 이른다.

한국인 투자로 운영되는 배 농장 이외에도 대만이나 홍콩 자본이 투입된 기업형 농장도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도에 위치한 100만평 규모의 톤토르(TONTOR)라는 대만에서 투자한 기업형 배농장이 있다.

산둥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 품종은 신고배가 60% 정도로 가장 많으며, 기타 주요 품종으로는 황금, 원황, 화산, 추황, 만수 등이 있다. 전체 재배면적 500만 평 가운데 생산이 가능한 3년생 이상의 배나무는 60% 수준인 300만평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목 면적이 많아 생산량이 많지 않으나 향후 생산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둥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묘목은 대부분 초기에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으로 현재는 중국 현지에서 묘목을 재배 보급되고 있다. 중국 진출 초기 일부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은 배 묘목을 팔아 그 대가로 땅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배 묘목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미 한국 배의 묘

⁷ 농협중앙회 중국사무소의 “중국 정보조사 보고: 중국 배 산업 현지조사 보고”와 필자의 산둥성 출장 결과를 정리 종합하였음.

목은 산동성 거의 모든 지역에 보급되어 있어 한국에서 들여오는 묘목은 아주 적다. 묘목 거래가격은 7위안/개(원가 3위안/개) 정도이다.

산동성에서 생산되는 배의 품질은 한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대전(大田)농장의 경우 최신 농법을 통해 당도가 17brix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저농약 재배를 하며 주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로는 중국 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깍질과 땅콩깍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약은 1년에 6~7회 정도 살포한다.

대부분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고 중국인을 임시공 형태로 고용하여 배 농장을 운영하며, 기타 기술지도 등을 위해 현지 배 전문가를 고용해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배 재배기술은 급속도로 중국인에게 전파되고 있다. 임시공의 인건비는 하루 20위안(2,600원)정도이며, 농장 경영비의 20~30%를 차지한다.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투자형태와 달리, 중국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경영은 중국정부가 하고 한국인은 기술지도와 묘목지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아오난(胶南) 지역 문경(闻京) 농산(삼성협력업체 투자)의 경우 중국 섬서성(陕西省) 서안(西安)시 정부와 50:50 공동 투자로 60만 평 규모의 배 농장 건설 중이다. 섬서성의 경우 인건비가 산동성에 비해 저렴하고 일조량이 많아 향후 한국 배 재배업자들의 투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한국인에 의해 생산된 한국 배는 주로 수집상이나 전문 유통인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대형유통매장으로 납품되며, 일부는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시장에 유통된다. 한인(韓人)농산이나 문경농산과 같은 대형 농장은 별도 영업활동을 통해 중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기타 소규모 농장은 모두 수집상이나 전문유통인 등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된다.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를 중국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고, 납품가격은 15~18위안/5kg 정도이며, 시장 판매가격은 2배 수준인 27~32위안/5kg이다. 중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작은 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⁸

중국내 배 수출권을 소유한 기업은 중국 전지역내 하북성의 박두동방과품유

한공사(泊头东方果品有限公司: 약칭 보토우)를 포함해 3곳이 있다. 배 수출은 이들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배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지역을 벗어난 산동성내 기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도 수집하여 수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토우(BOTOU)와 같은 수출업체는 허베이 지역내 일부 승인된 지역의 배만을 수출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산동성의 한인농장이나, 칭다오 대전농산과 같은 다른 지역의 배를 수집하여 수출하기도 한다.

한국인에 의해 생산된 한국 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출된다. 하북성의 보토우(泊头东方果品有限公司)를 통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경로이며, 일부 업체는 한국 수출업체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나 동남아시아의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여 수출업무 대행을 보토우에 맡기기도 한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배 농장에서 생산되는 배의 20% 정도는 수출용이며, 대부분은 중국내에서 판매된다. 위해(威海)시에 위치한 40만 평 규모의 한인농장(韓人农场)은 연간 40만 톤을 생산하는데 이중 5만 톤은 캐나다에 4만 톤 정도는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가격은 캐나다의 경우 \$10~13/5kg이며, 동남아의 경우 \$8/5kg 수준이다. 중국내 판매가격이 \$4/5kg인 것에 비하면 수출가격이 2~3배 수준이어서 수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가가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은 약 \$5/5kg 수준으로 중국내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배 농가들은 중국업체를 통한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수출시 “한국배”라고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 부착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이 많게는 60%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수출되는 배의 90% 이상은 “한국배”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배도 모두 “한국배”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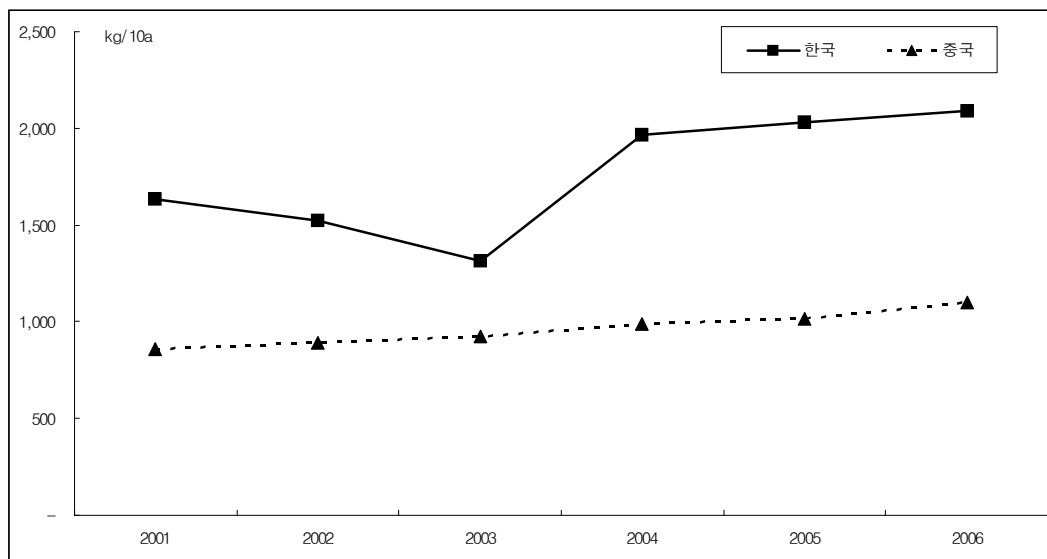
⁸ 중국어로 배는 리(梨)로 읽히지는데 '리'라는 발음이 이별을 나타내는 리(離)와 유사하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큰 배보다는 나눌 수 없는 작은 배를 선호하는 편이다.

8. 중국산 배의 경쟁력 및 대한민국 수출 가능성

중국의 배 수출 규모는 2006년에 37만 5,000톤으로, 우리나라 국내 생산량이 43만 톤임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물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배 생산량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로의 수출 여력도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수입 가능 여부의 관건은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중국산 배의 10a당 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단수와는 차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 중국과의 단수 차이가 390kg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산 배와 국산 배의 단수 차이는 약 1,000kg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5-4. 한국과 중국산 배의 단수 비교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산 배는 국산 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낮다. 또한, 외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식미감은 국산 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배의 품종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산 배는 품질면에서 국산 배에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6. 국산 배와 중국산 배의 품질 비교

구분	과중 (g)	당도 (Bx)	경도 (kg/8mm)	외관		식미		종합	
				과형	색깔	육질	향기		
한국산	신고	500	13.0	1.60	8.0	8.0	8.0	8.0	상
	황금	400	14.0	1.20	8.5	9.0	9.0	9.5	상
중국산	설리	400	12.8	2.35	7.0	8.0	4.0	4.5	중
	향리	173	12.2	1.10	7.0	8.0	3.0	3.2	하

자료: 김정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63)에서 재인용.

중국산 배는 현행 45%의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국내에 수입될 경우 가격이 국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FTA로 관세가 부분 감축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국산 배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5-7. 시나리오별 중국산 배의 수입가격

단위: 원/kg

구분	국내산 가격	중국산 배의 수입가격		
		현행관세 유지	50% 철폐	완전 철폐
배 가격	1,913	972	821	670

자료: 김정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68)을 바탕으로 재구성.

배의 경우에는 산동성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국배의 국내 유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에서 생산량이 많은 압리나 설화리 등은 국산 배와 대체관

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배 품종과의 대체관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배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은 산동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국배 품종이 수입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지 출장 조사 결과, 산동성의 한국배 생산농가들은 모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배는 생산비는 일반 중국배보다 높은 반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일반 중국배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 상품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백화점 등에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배 농장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대적으로 한국배를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배 재배농가들은 일반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한국계 소매점 등에 출하하거나 일부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더욱이 유목이 모두 성목이 되는 4~5년 이후에는 산동성에서만 생산되는 한국배 물량이 4만 톤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 생산량의 10%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현재 산동성에서 생산되는 한국배 물량이 4,000~5,000톤 수준임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4만 톤이 생산되었을 때 중국 내에서 한국배 시장의 교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농가들은 빠른 시일 안에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배가 우리나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고 한국배의 역수출 길이 열린다면, 중국에서의 한국배 생산은 산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로의 배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중국내 한국배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배 수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배 산업은 사과 농가의 대대적인 배로의 전환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고품질 배의 중국으로의 수출도 쉽지 않다. 이미 산동성에서 생산되는 한국배가 품질면에서는 국내산과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

하기 때문에 산동성에서 재배되는 배를 구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FTA 체결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낮은 편이다.

또한, 사과와 배는 대체관계가 매우 높은 과실이다. 따라서 사과와 배 어느 한 품목이라도 수입된다면 두 가지 품목 모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 사과와 배는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는 사과와 함께 중국이 2004년 7월에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을 한 품목이다. 현재 접수만 된 상태로 다음 단계인 착수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식물 검역의 경우 수입 금지 해제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의 경우도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단기간에 수입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포도 산업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포도도 다른 과실과 같이 개혁개방 이후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당시인 1978년에 10만 톤 내외였던 포도 생산량은 1992년에 100만 톤을 넘어섰고 1997년에는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2000년에 300만 톤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600만 톤 이상이 생산되었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량은 연평균 12.5%씩 성장하였다. 포도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식용 포도와 와인용 포도 모두 재배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포도 재배면적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93년과 2006년 사이에 연평균 9.2%씩 증가하였다. 반면, 단수는 같은 기간에 3.0%씩 성장하는 데 그쳤다. 포도 재배면적은 2003년에 42만 ha로 정점을 이룬 후 2004년에 41만 ha, 2005년에 40만 ha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는 다시 42만 ha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포도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증가한 44만 3천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포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등락은 있지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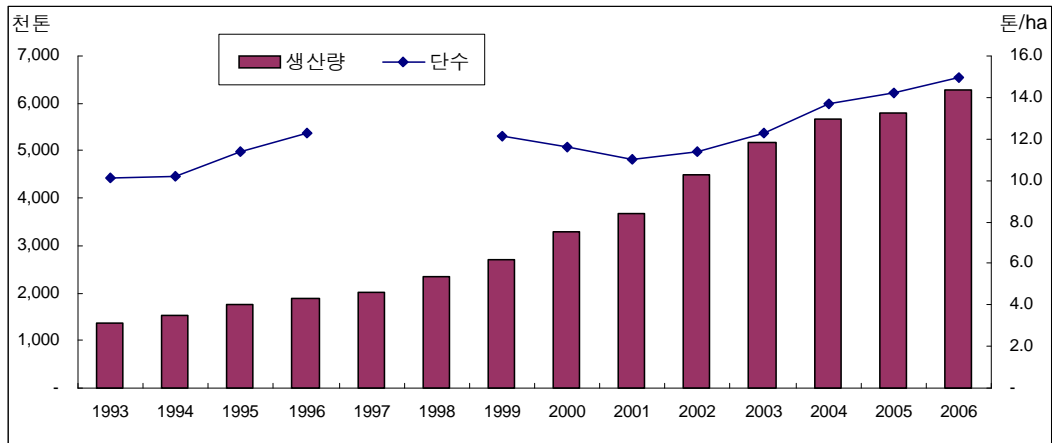
단위: 천 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배면적	283	334	392	421	414	408	419
생산량	3,282	3,680	4,479	5,176	5,675	5,794	6,271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2003년 이후에는 재배면적이 감소 및 정체되었으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단수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포도의 ha당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에 12톤을 넘어섰다가 다시 11톤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에 다시 ha당 12톤을 회복하였고 2006년에는 15톤을 초과하였다.

그림 6-1. 포도의 생산량과 단수, 1993-200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 포도 생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식용포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식용 및 건포도로 이용되는 재배면적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 품종별로는 Kyoho의 비중이 가장 높다. 최근에는 Red Globe가 보급되면서 Kyoho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포도 농장은 주로 발해만(渤海湾, Bohai Gulf) 지역과 황하(黄河, Yellow River Basin)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신강을 포함하여 하북, 산둥, 요녕에서 생산되는 양을 합하면 중국 전체 포도 생산의 60%가 넘는다. 신강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주로 건포도용으로 이용되는데 신강에서 생산되는 과실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신강자치구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06년의 경우 신강자치구의 생산량은 전체의 24%를 차지하였다.

신강의 토노번(吐魯蕃, Turpan)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종은 주로 진주(珍珠, Zhen Zhu, Pearl)와 청마내(青馬奶, Qing Ma Nai, Green Horse Nipple)이다. 진주는 씨 없는 연한 초록색 품종이고 청마내는 Thompson과 유사한 품종이다. 신강지역에서는 건포도 생산을 위해 포도 과원에서 포도 송이째로 포도를 건조시킨다. 하지만 알갱이가 많이 떨어져 손실이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 및 유통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까지 신강 지역의 포도는 주로 건포도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시스템이 정비되고 처리 물량이 증가하면서 신선 포도 형태로 유통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포도 1톤을 생산하는 데 약 4.5톤의 신선포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인산업이 발달하면서 하북성, 산둥성, 요녕성 등에 와인용 포도 농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와인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Chardonnay, Sauvignon, Cabernet, Merlot, Pinot Noir 등이 주로 재배

표 6-2. 포도의 지역별 생산량, 2000-2006

단위: 천톤

	전체	신강자치구	하북성	산둥성	요녕성	하남성
2000	3,282	684	524	475	430	208
2001	3,680	662	580	619	397	280
2002	4,479	908	758	641	522	305
2003	5,176	1,066	803	761	586	311
2004	5,675	1,241	841	850	614	383
2005	5,794	1,288	864	831	582	413
2006	6,271	1,502	878	845	587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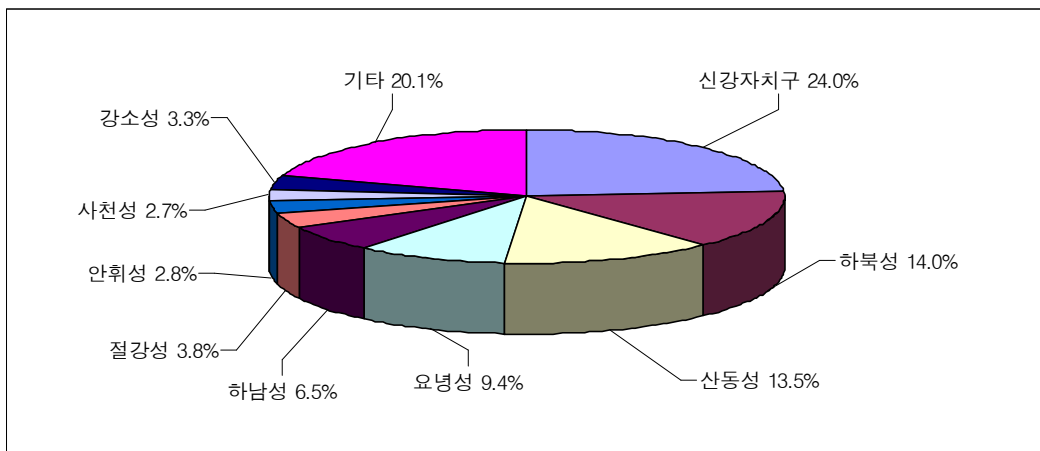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된다. 산둥성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식용과 와인용으로 이용된다. 와인용 포도는 지역적으로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경지역에서 와인 소비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품종은 Kyoho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씨 없는 품종과 Red Globe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Red Globe는 1987년에 도입된 품종으로 2003년부터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품종 가운데 수출되는 품종은 주로 Red Globe이기 때문에 이 품종의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신강을 비롯하여 산둥 및 하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거봉포도도 생산량이 많은 품종 중의 하나이다. 동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식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룡안포도(龍眼葡萄)는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포도 품종으로 하북성의 툰루현 온천툰(溫泉屯) 지역이 주산지이다. 장미향포도(玫瑰香葡萄)는 장미향으로 유명하며, 천진지역 특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진지역에만 재배면적이 6만무(1,200만평)에 이른다. 한구구(漢沽區)는 장미향 포도의 최대 생산지이다.

그림 6-2. 지역별 포도 생산 비중, 2006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2007.

포도는 전국적으로 생산되어 품종마다 소비시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9~10월 사이에 소비가 집중된다. 조생종은 7월 초부터 중순, 중생종은 7월 말부터 8월 말, 만생종은 9월 이후 주로 소비된다. 수확 후 기술 수준이 낮고 냉장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포도의 유통기간이 매우 짧다.

일부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포도를 직접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경, 상해, 대련(大连, Dalian) 등 대도시 인근에 포도 시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비가림시설도 있고 가온시설도 있다. 이 지역들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기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이 지역의 시설재배 포도가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지면 이 지역에서의 시설포도 재배면적도 증가할 수 있다.

2. 수출입

포도는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훨씬 큰 다른 과실과 달리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품목이다. 2006년의 경우, 수입액은 6,900만 달러였으나 수출액은 2,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교역 규모도 다른 과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2006년 사과 수출량은 80만 톤이었고 배는 32만 톤이었다. 하지만 포도의 수출량은 3만 톤 수준이었다. 2006년 건포도 총수출액은 3,000만 달러

표 6-3. 식용 포도 수출입 규모, 2004-2006

단위: \$1,000

	2004	2005	2006
수출액	7,384	9,970	19,234
수입액	67,546	82,353	69,38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수준이었다.

수출 물량은 소량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포도 수출국은 전통적인 중국의 교역대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파키스탄, 러시아 등이다. 특히,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2002년에 1,000톤 미만이었던 수출량은 2006년에 7,000톤을 초과하였다. 홍콩도 새로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의 수출량은 2002년에 비해 14.2배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도 주요 수출국으로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수출량이 3배 증가하였다.

포도 수출 중심지는 동북부의 합이빈(哈尔滨, Harbin), 남부지역의 남녕(南寧, Nanning), 서북부의 오로목제(烏魯木齊, Urumqi), 산동성의 청도(靑島, Qingdao) 등이다. Harbin과 Nanning의 수출 물량을 합하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포도 수출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수확 후 포도를 송이채로 유통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수확 후에도 손실이 적은 품종으로의 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확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약품이나 약제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표 6-4. 중국의 국별 식용포도 수출,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5	2006
파키스탄	776	3,966	3,613	7,387
러시아	2,083	2,618	9,317	6,881
홍콩	430	629	1,976	6,121
베트남	1,241	1,298	2,531	4,439
말레이시아	673	1,290	1,591	3,215
인도네시아	213	761	355	2,666
태국	0	676	730	1,862
기타	447	2,205	1,144	1,722
합계	5,863	13,444	21,257	34,293

주: marketing year로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중국의 포도 수입은 매년 5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4만 톤 대로 하락하였다.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와 미국이다. 이들 두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전체 수입의 95%가 넘는다. 포도 수입은 춘절을 전후한 시기에 최고조에 달한다. 건포도 수입액은 1,400만 달러 수준이며, 미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되는 포도의 90% 이상이 심수(深圳, Shengzhen)과 광주(廣州, Guangzhou)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6-5. 중국의 국별 식용포도 수입, 2002-2006

단위: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19,479	22,028	21,305	21,663	19,184
칠레	35,289	31,138	37,302	34,370	24,638
뉴질랜드	0	0	323	1,442	59
일본	0	0	0	15	0
기타	76	246	56	0	2,123
합계	54,844	53,412	58,986	57,490	46,004

주: marketing year로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간임.
 자료: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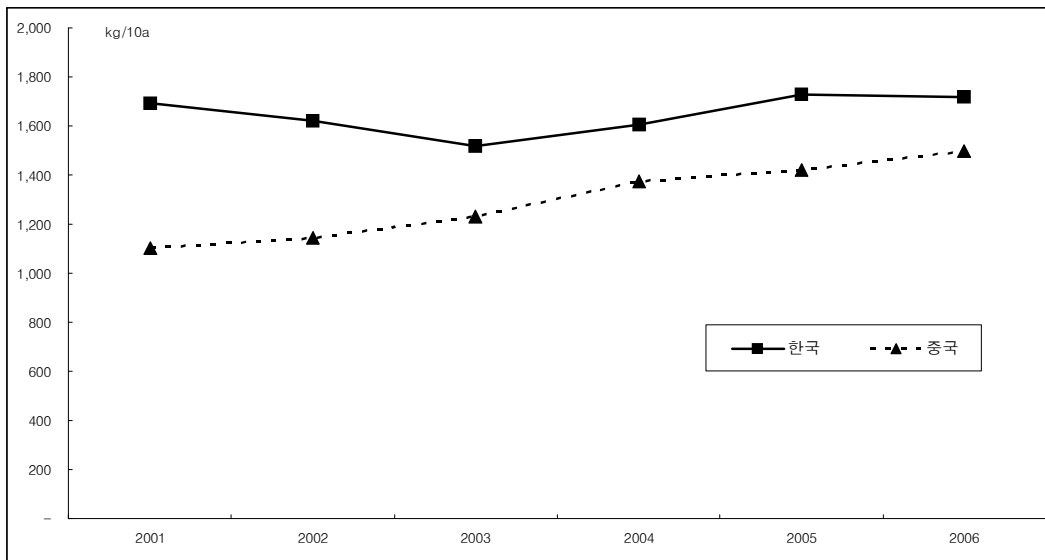
일부의 의견에 따르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한 포도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USDA/FAS). 포도 수입에 비공식 채널이 이용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이 중국으로 과실을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포도는 거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포도는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Red Globe 품종이 주를 이룬다. 중국 내에서도 Red Globe 품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에 비해 크기, 당도, 외형 등이 떨어진다. 미국산 포도는 주로 9월의 중추절과 10월의 국경일에 주로 소비된다. 칠레산 포도는 봄철의 춘절에 주로 소비된다.

3. 중국산 포도의 경쟁력 및 대한국 수출 가능성

중국의 포도는 수출량도 많지 않고 수입량도 많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식용 포도보다는 와인용 포도나 건포도용 포도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포도의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만간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산 포도와 국산 포도 사이의 10a당 생산량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1년에 10a당 생산량이 590kg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차이가 200kg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수의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배 단수와와의 차이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 한국과 중국산 포도의 단수 비교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USDA/FAS.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every year.

기존에는 중국산 포도가 국산 포도의 품질을 좇아오기에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김경필 외). 하지만 최근 포도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품질 차이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들도 기존 품종을 신품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품질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겠지만 수출을 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의 품질은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만약 식물 검역상의 절차가 종료되어 중국산 포도가 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산 포도에 대해서는 사과나 배와 동일한 45%의 관세가 적용된다. 현행 관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중국산 포도의 한국내 가격과 국산포도 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산 포도가 품질면에서 국산 포도에 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포도가 수입되더라도 일정 정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품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수출 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품질은 국산 포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출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포도에 한해 수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평균적인 품질 차이의 비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6-6. 시나리오별 중국산 포도의 수입가격

단위: 원/kg

구분	국내산 가격	중국산 포도의 수입가격		
		현행관세 유지	50% 철폐	완전 철폐
포도 가격	2,267	2,168	1,831	1,495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80)을 바탕으로 재구성.

예를 들어, 시설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포도의 품질은 일반적인 포도보다 품질면에서 뛰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동성, 요녕성 등에 시설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설

재배의 경우, 노지 재배보다 병해충 방제가 쉽고 수입국이 요구하는 수입검역 조건을 맞추기 쉽다. 따라서 양벚과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입 승인은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에서 중국측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물검역상 수입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빠르면 4~5년만에 시설포도의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식용포도와 달리 건포도나 와인의 수입은 FTA가 체결되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와인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고품질 와인이 생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산 와인이 수입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가 와인시장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건포도 수입도 증가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과실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비중이 낮지만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단감과 복숭아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 자료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제7장에서는 이 두 품목을 묶어 다른 품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1. 복숭아

중국은 세계 복숭아 생산량의 43.7%를 차지하는 최대의 복숭아 생산국이다 (2006년 기준). 중국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65만 ha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여 2000년에 385만 톤이던 생산량이 2006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751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재배면적은 연평균 5.7%씩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1.8%씩 증가하였다. 단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복숭아의 10a당 생산량은 2000년 825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150kg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숭아 단수가 10a당

1,448kg(2006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단수 차이가 300kg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복숭아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국내의 복숭아 단수도 증가하여 단수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 7-1. 중국의 복숭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2000	2001	2003	2005	2006
재배면적	467	455	610	683	653
생산량	3,855	4,588	6,182	7,833	7,510

자료: FAO.

중국은 복숭아를 수출하기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순수입국이다. 특히, 중국은 매년 5만 톤 내외의 물량을 수입하여 왔다. 2005년의 경우, 4만 5,000톤을 수입하고 1만 8,000톤을 수출하였다. 최근에는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 대비 수출량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그 차이가 4만 8,000톤이었으나 2005년에는 2만 7,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복숭아의 수입을 자유화하였지만, 식물방역법상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생과실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수입제한 해제 요청을 하여 현재 4단계인 개별 병해충 위험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 빠른 시일 안에 중국산 복숭아가 국내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의 경우 현행 관세 45%를 유지할 경우, 한국 내에서 중국산 복숭아와 국산 복숭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가 완전 감축되거나 50%만 감축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숭아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양허조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7-2. 시나리오별 중국산 복숭아의 수입가격

단위: 원/kg

구분	국내산 가격	중국산 복숭아의 수입가격		
		현행관세 유지	50% 철폐	완전 철폐
복숭아 가격	2,114	2,198	1,857	1,516

자료: 김정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p. 85)을 바탕으로 재구성.

2. 단감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최대의 감 생산국이다. 재배면적은 2000년에 47만 ha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65만 ha까지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160만 톤에서 2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재배면적은 연평균 5.6%씩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연평균 3.5%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감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감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중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의 소비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소비량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감 생산량이 약 20만 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감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품질 차이가 적고 가격 차

표 7-3. 중국의 감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2000	2001	2003	2005	2006
재배면적	471	483	603	663	653
생산량	1,616	1,611	1,833	2,081	1,987

자료: FAO.

이가 많이 난다면 중국산 감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생과실 형태로의 수입이 어려울 경우 꺾임이나 다른 형태로 가공 후 수입될 개연성도 있다. 이미 중국은 꺾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감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는 45%이다. 식물방역법상 미국 일부지역, 일본,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중국이 수입허용 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접수에서 최종 승인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식물검역상의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FTA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할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일 내에 수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

제 8 장

식물 검역과 과수 수출입

식물 검역은 외국의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식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검역상의 해충위험분석(PRA: Pest Risk Analysis)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검역당국으로부터 유해 병해충이 없거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식물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청과 수입금지 조치 해제절차는 다음 8단계를 거치게 된다. 식물검역해제 절차는 ① 수입위험 분석 접수(Filing) → ② 수입위험분석 착수(Initiation) → ③ 병해충 예비위험평가(Pest Categorization) → ④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 → ⑤ 병해충 위험관리방안 작성(Pest Risk Management) → ⑥ 수입허용 조건 초안 작성 및 체결(Drafting) → ⑦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Public Notice) → ⑧ 수입금지 제외 기준 고시 및 발효 과정(Notification & Enforcement)을 거친다. 이 가운데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20일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PRA 단계인 ②~⑤단계이며, 이 단계가 지나면 나머지는 행정상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것과 다르없다. 따라서 수입제한 조치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PRA 단계인 ②~⑤단계에서이다.

그림 8-1.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치 해제절차



자료: 국립식물검역원.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15개국 24개 품목에 대한 PRA 과정을 마치고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31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54개 품목에 대해 133건의 PRA를 진행하고 있다.

표 8-1. PRA 진행 단계별 품목수

PRA 단계		품목수
제1단계	(Filing)	76
제2단계	(Initiation)	8
제3단계	(Categorization)	2
제4단계	(Pest Risk Assessment)	21
제5단계	(Pest Risk Management)	26
제6~8단계	(Notice & Proposed Rule)	0
합 계		133

자료: 국립식물검역원(www.npqs.go.kr)

우리나라는 과실별로 수입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도의 경우 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는 수출국이 식물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포도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과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일부 품목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남아공에서 생산된 오렌지나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스위트는 생산지 혹은 수송 과정에서 저온처리를 해야 한다. 이집트에서 우리나라에 오렌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과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며 저온 처리도 해야 한다.

표 8-2. 주요 과실의 수입 허용지역

품목	국가	수입 허용 지역
감귤류/레몬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참다래	미국	하와이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자몽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자료: 국립식물검역원(www.npqs.go.kr)

표 8-3. 주요 과실의 수입 허용조건

품목	국가	수입 허용 조건
오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오렌지는 식물검역증에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카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표기하여야 수입 허용.
	칠레	식물검역증에 <i>Septoria citri</i> 및 <i>Pantomorus cervinus</i> 가 없음을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단지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한함.
	이집트	지정된 수출 과원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한하며 생산지 혹은 수송 중에 저온 처리를 해야 함.
	스페인	수출 전 혹은 수송 과정에서 저온 처리해야 함.
양벚	뉴질랜드	식물검역증에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s가 없음을 표기
	미국	생산지에서의 훈증, 소독처리 내용, 원산지 카운티명, 유해동물, <i>Stigmina</i> 및 <i>Blumeriella jaapii</i>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표기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등록된 수출 과원 및 선과정에 대하여 재배지 검사 등을 통해 병해충 무발생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 사실이 위생증에 표기되어야 함.
포도	칠레	과실파리 무발생 인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 필요
키위	칠레	과실파리 무발생 인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 필요

자료: 국립식물검역원(www.npqis.go.kr)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조치 해제 속도는 수입 허용요청 국가의 적극성이나 국제 협상 과정에 따라 다르다. 또한, 품목별 수입 금지조치 해제 절차는 수입 위험분석을 우선 접수한 국가와 품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제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가간 협의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및 위험도평가(PRA) 품목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한 품목은 6개 품목이다. 양벚은 2003년 10월, 여지, 용안, 사과, 배는 2004년 7월, 호박은 2005년 5월에 각각 수입제한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 가운데 양벚은 산동성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 2007년에 6월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여지는 현재 해충위험분석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품목들은 접수만 된 상태이다.

표 8-4. 중국이 수입금지 해제 요청한 품목

요청 시기	품목	진행상황
2003년 10월	양벚	2007년 6월 산동성 양벚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
2004년 7월	용안	접수 (Filing)
	여지	착수 (Initiation)
	사과	접수 (Filing)
	배	접수 (Filing)
2005년 5월	호박	접수 (Filing)

자료: 국립식물검역원(www.npqs.go.kr)

중국이 식물 검역상 규제대상인 해충의 유병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선 사과나 배 등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의 수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검역 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PRA 진행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수출국의 적극성이나 협약에 따라 진행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FTA는 식물검역과의 별개의 문제이지만,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식물검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 예상보다 빨리 PRA 과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9 장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과수산업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 사이에서 소득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왔다. 여기에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의 도입 등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배면적 증가속도보다 생산량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노력도 과실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4년 시작된 우세농산물 배치계획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사과와 감귤류를 우세농산물로 지정하고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 농산물의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이 마무리되면 사과와 감귤의 품질은 크게 개선되고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노동력의 저렴한 임금과 낮은 토지 임차료는 중국 과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원천이 되었다. 중국 과수산업은 저렴한 임금과 임차료를 배경으로 국제시장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높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2002년 11월에 ASEAN과 FTA를 체결을 위한 경제협력(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마카오(Macao)와도 CEPA를 체결하였다. 2003년에는 홍콩과 CEPA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파키스탄 및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도

적극적이어서 ASEAN 회원국들과는 관세 조기 감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도입하여 조기에 농산물 관세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통시스템의 미비, 저온저장고 시설의 부족, 냉장 유통시스템의 부족,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 등으로 신선 과실의 수출이 한계를 보이자 가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냉동 농축 사과주스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랐다. 생산된 사과주스의 90% 이상이 수출되며, 미국 시장에서 브라질의 수출을 추월하였다. 최근에는 오렌지 주스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오렌지 가공산업도 조만간 국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여건도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다.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중국도 더 이상 예전만큼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지역과 산동성을 비롯한 연안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산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의해 세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중국발 농업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산 과실도 과거처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 현지 출장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과실은 품질과 오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영농 교육과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 유통시설의 확충 등으로 품질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과실의 품질은 낮은 편이다.

또한, 중국 농가들은 영세하여 저가의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을 함유한 화학비료, 금지된 동물 약품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이 파괴되어 하천과 지하수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2007년 8월 미국 검역 및 검사 당국이 전체 수입식품의 1%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257건이 수입 거부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산 과실이 수입되더라도 검역 및 검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역에 따른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수입이 허용되고 수익성이 높다면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품질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어

는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사과와 배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해제 신청을 한 6개 품목(양벚, 사과, 배, 용안, 여지, 호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과실 파리 등의 유병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과실이 금지 대상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중국산 과실은 우리나라 과수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 수위의 강화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능검사의 비율을 줄이고 무작위 표본 조사 혹은 정밀검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금지대상 농약 목록(negative list system) 대신 일본과 같이 허용대상 농약 목록(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 과실의 중국으로의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량이기는 하지만 사과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사과 생산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과는 고품질의 고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실도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중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과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검역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측이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량을 수출하는 대신 대규모 물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으로의 수출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경필, 이원진, 박재홍, 박미성. 2006.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4.
- 김병률, 이두순, 최지현, 임정빈, 김경필. 2001.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7.
-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김성우. 2004. 「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84.
- 농림부. 2001. 「中國 園藝産業實態調査 報告」. 2001-유통41.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6. “포도,” “감귤.” 현지조사보고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한·중 FTA 대비 중국 감귤산업 현황 조사.” 현지 조사보고서.
- 농협중앙회 중국사무소. 2006. “중국 배 산업 현지조사 보고.” 중국 정보조사 보고서.
- 박문호, 김경필, 한혜성. 2006. 「FTA/DDA 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39.
- 서종혁, 최정섭, 최세균, 박현태, 김태곤, 문순철, 박기환.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35.
- 어명근 외. 2006.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R535.
- 오세익. 2005. “중국, 원예산업 실태와 전망”. 「세계농업뉴스」 제5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섭, 박은철. 2007. 「중국의 농업과 농업정책」. 한·중 FTA 대비 자료집(07.8). 농림부.
- 최세균 외. 2006. 「한-미 FTA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57.
- Australia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2004. “China Fruit Market Report,” June, 2004.
- Chester, Courtney. 2006. "Citrus," Chapter 11 in Agriculture in China. ABARE Research Report 06.2.
- DataMonitor. “Fruit & Vegetables in China.” August 2005.
- Dennis Shields and Sophia Wu Huang. 2004. “China's Fruit and Vegetable Trade.” ERS/USDA.
- Huang, Sophia Wu, and Fred Gale. 2006. “China's Rising Fruit and Vegetable Exports Challenge U.S. Industries.” USDA/ERS FTS-320-01
- USDA/FAS. “China Citrus Annual.” GAIN Report.

USDA/FAS. "China Fresh Deciduous Fruit Annual." GAIN Report.

USDA/FAS. 2007. "China, Market Development Report: Bustling Ports in South China."
GAIN Report CH7609.

USDA/FAS. 2007. "China, Market Development Report: South China, Vibrant Gateway for
China's Imported Fruit." GAIN Report CH7610.

Wahl, Thomas. E-News March 2007, IMPACT, Washington State Univ.

C2007-48

한·중 FTA 대비 중국과수산업의 실태 및 대한민국 수출가능성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